

第258回國會
(臨時會・閉會中)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임시회의록)

第 7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6年3月23日(木)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인사청문회

審査된案件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인사청문회 1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인사청문회

○위원장 이미경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요청해 온 인사청문회로서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가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그리고 공직수행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지연이나 학연, 혈연 등에 구애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 소신과 자질을 객관적이

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공직후보자의 최종진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절차는 후보께서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06년 3월 23일

공직후보자 김명곤

○위원장 이미경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의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의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내정받은 김명곤입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한편으로는 봄을 맞는 것 같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부담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걸어온 길을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시절 배우, 연출가, 극작가, 극단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미래를 고민하던 제가 지난 2000년 국립극장장으로 취임하여 예술행정의 꿈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무척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6년을 돌이켜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각계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국민 속의 국립극장, 세계 속의 국립극장, 정보화 속의 국립극장’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국립극장의 직원 단원들과 함께 열정과 신념으로 국립극장의 변화를 일구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나날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를 마치고 예술의 현장으로 돌아간 저에게 문화관광부를 이끌어 갈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은 국립극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한국의 도약대를 마련하라는 무거운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문화계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미래의 국가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문화산업과 함께 종교, 미디어,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에 중차대한 과제들이 있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영화 한 편의 관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아시아와 세계로 퍼져 나가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문화산업은 미래의 한국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의 미래산업인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가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화산업의 뿌리가 되는 연극·무용·문학·미술·음악·전통예술 등 기초예술의 현장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뿌리가 부실하면 그 위에 자라는 나무에서는 좋은 결실이 맺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예술계 기초를 다지는 일에 문화관광부가 좀더 정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이 활성화되고 문화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문화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종교가 상호 공존하는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분야 역시 최근 인터넷 매체의 급성장으로 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매체의 지속적 육성과 건전한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전자정부를 실현했지만 아직도 소프트웨어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콘텐츠 소프트웨어,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국민의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광산업, 레저스포츠산업 등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형 국가 기간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관광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아시아 관광의 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초예술의 토대 없이 문화산업을 꽃 피우기 어렵듯이 생활체육·학교체육의 기초가 튼실하지 않고는 엘리트체육도 꽃피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엘리트체육의 성과를 생활체육·학교체육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체육도 체육 정책의 한 틀로 육성해야 될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이 많은 과제들을 위해 정부는 각각의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고 잘못된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는 더 이상 문화 분야에만 머물러 안주할 수 없습니다. 통일, 여성, 환경, 국토개발, 사회의 양극화, 고령화, 가족의 해체, 이주노동자, 노사갈등, 소외계층의 문제 등 우리 사회는 경제적·정치적 처방과 함께 문화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사회발전은 결국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잃은 메마른 사회를 초래할 뿐입니다.

문화를 통한 소통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관광부가 문화적인 처방으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시절 제가 예술의 현장에서 좌절과 절망속에서 고통을 겪을 때 저를 일으켜 준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드높은 꿈과 이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열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문화관광부장관 직을 맡게 된다면 많은 시련이 오겠지만 그동안 쌓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행정을 펼쳐는 도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부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문화관광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임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고민하는 자세로 한편으로는 겸허하고 또 한편으로 치열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명나는 문화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명곤 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주 질의를 모두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과 사전 조정한 대로 오전에는 방송

생중계가 있으므로 위원 1인당 주 질의 시간을 4분으로 해서 마친 다음에 오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된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우상호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장관 내정자가 장관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지, 그 식견과 비전에 문제는 없는지, 또 도덕성에 결격 사유는 없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청문회입니다.

모쪼록 이 청문회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는 그러한 정치공세의 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략 제가 관심 있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명곤 장관내정자께서 직접 올해 초에 출간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문화의 블루오션을 꿈꾸다’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화예술 특히 기초예술에 대한 애정과 여러 가지 비전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연극인 출신으로 또 영화에도 배우 출신으로서 아마 이 분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 같은데, 지금 기초 문화예술 분야는 대단히 취약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기본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기초예술인들의 생활을, 말하자면 생존이 불가능한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기초예술의 위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 오면서, 그동안에는 사회가 기초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헤쳐 나가는 일을 망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적 가치가 사회의 어떤 공

적 가치로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기초예술인들의 창작 조건과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문화관광부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과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좀더 진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신데요, 지금 연극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초예술인들 그러니까 연극, 영화, 영화 스태프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별도의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극인복지재단이라든가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소극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많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상호 위원** 다음은 관광문제인데요, 관광문제는 장관내정자께서도 잘 모를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관광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들어오는 관광객은 한 600만 되는데 나가는 관광객은 800만으로 역조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제 관광은 관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 또는 환경, 어떤 건설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의 역류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국내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명품화할 것이냐, 또 이것을 어떻게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는 관광 차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국토의 디자인적인 문제와 함께 연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위원** 답변이 자꾸 추상적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군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국민연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99년도에 네 번을 미납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심재철 위원** 국민연금을 탈루하신 것인데 그러나 당시에 건강보험은 완납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심재철 위원** 필요한 혜택은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내야 될 것은 안 냈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의 행태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월 200만 원을 번다고 국민연금을 33등급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축소신고한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용인시 죽전동에 47평짜리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분당 38평짜리 전세를 살았고요. 그러면서 차량은 포텐샤와 티코 2대를 굴리고 있었고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맡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한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주 땅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땅을 둘러싼 채무관계는 없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당시에 근거당 8000만 원을 떠안고 구입했던 것도 아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시 말해서 계약서에 쓰여 있는 25만 원의 땅을 구입했다는 것인데 땅이 213평입니다. 213평이면 초등학교 교실 10개나 되는 넓이인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현지 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후보자 집이고 밑에는 별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꽤 좋은 땅인데 213평짜리 땅을 단돈 25만 원에 샀다 하는 게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잠깐만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당시 구입가가 얼마나 하면 평당 1174원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3380원으로 공시지가의 30%밖에 안 됩니다. 원래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더 낮는데 공시지가의 30%로 땅을 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추측을 해 보니까 결국은 세금문제 때문에 적게 신고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 본인의 이력서 문제입니다.

청문회 할 때 극단 아리랑 대표를 언제까지 했느냐 하니까 86년 8월부터 97년 12월까지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국립극장장 공모를 할 때는 99년 10월까지 했다고 해서 이게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아리랑 대표인 방은미 씨의 녹음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녹음 내용 재생)

(녹음 내용은 끝에 실음)

이렇게 극단 대표했던 날짜가 두 이력서상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느 것 하나는 허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첫째로 국민연금 미납 문제는 아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서류 관계에서 조금 실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 관련인데 무주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95년 무렵에 몇 사람의 교수와 예술인들, 영화인들이……

○심재철 위원 아니, 213평을 25만 원에 샀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한 40여 명의 회원들이 그 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공동개발을 하고 모든 개발을 문화기획을 하는 분에게 위임을 해서 저는 그때그때 회비를 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구매한 가격은 25만 원이 맞고요, 그 외에 길을 낸다든가 하수도를 묻는다든가 전기를 매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회원들이 공동으로 다 회비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은 200평을 넘지 않는 집을 구매를 하자,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그 회원들이 땅을 투기할 목적으로 함부로 땅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견제용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저당 설정을 한 것도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 땅도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땅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회원들이 전혀 땅투기 목적으로

개발을 한 게 아니고, 무주 레저스포츠나 태권도 공원이라는 것은 요즈음에 생겨난 말이고 이미 10년 전에 순수하게 창작실이라든가 작업실을 공동으로 만들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러한 목적으로 투기를 했다면 모든 회원들이 함께 투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말 씀이고요. 토지, 산야의 가격은 그 당시에 그것이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서류절차와 토지 또는 집을 짓는 것은 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하는 과정에 저는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요.

이력서 문제는……

○위원장 이미경 잠깐만요, 아마 또 질의를 하면서 답변하실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답변하실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것은 오전 중에는 생방송 관계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순서가 돌아가게 간사들께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하시지 마시고 중점적인 대표질의를 1개 하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추가로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때도 또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열린우리당 이경숙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정책에 대한 비전은 그동안 문화예술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문화정책의 기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공급자와 수요자와 그 공급과 수요를 매개하는 매개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수용과 유통의 이 세 바퀴가 원활하게 굴러가야 되는 시기가 21세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삼박자가 균형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너무나 항상 뒤에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동안에는 창작자 중심이었다고 봅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국민이 문화의 체험자이고 그다음에 참여자이면서 창작자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문화정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체육정책에도 역시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동의를 하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게 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명박 시장의 황제테니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이경숙 위원 그런데 황제테니스 사건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체육에 있어서 대중화, 생활체육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하고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체육회장이 서울시장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장님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아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한 세 가지 점을 제가 짚겠는데요.

서울시체육회장을 서울시장이 겸하면서 생활체육의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조직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이번에 드러났는데요. 첫 번째가 보면 서울시장이 테니스를 치는 것을 주선하는 것이 결국 체육단체인 체육진흥회와 서울시체육회가 관여한 것입니다. 이게 사조직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용지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잠원테니스장의 위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탁의 문제를, 서울시체육회장이 서울시장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이경숙 위원 그런데 서울시체육회에 위탁을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남산테니스장의 위탁을 서울시체육진흥회에 맡겼습니다. 맡겨서 계약을 한 3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약을 하게 됩니다. 3개월 앞당겨서 해약을 하는데 그 시점이 요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해약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해약을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실보전금을 줘야 되는데 손실보전금 없이 3개월 전에 해약을 했다, 결국 그러면 이 체육회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게 사조직화되면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체육회에 문화관광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매년 시·도체육회에 1억 2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의 체육정책은 어떻습니까? 엘리트체육과 함께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서울시체육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보도만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안다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생활체육 또는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간의 균형 문제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도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구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갑 출신의 최구식입니다.

언제 영화계에 입문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최구식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한 80년 초쯤입니다.

○최구식 위원 그때 영화가 오늘처럼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최구식 위원** 조금 전에 인사말에서 발언하셨지만, “영화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믿으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혹자는 미래 우리나라 국가기간 산업이 영화를 비롯한 문화가 될 것이다, 정말로 국가의 비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저도 동의 합니다.

○**최구식 위원** 지난 1월 26일 경제부총리가 느닷없이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73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혀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적절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상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구식 위원** 그 뒤에 반대가 아주 들끓었던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그런데 두 달도 안 되는 3월 7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 역시 국가 정책과 통상관계 변화 이런 것에 대한 신중한 결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구식 위원** 이제 이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7월 1일부터 축소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축소가 이제 시행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망합니다.

○**최구식 위원**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민적인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마 이 스크린쿼터 문제는 최근 10여 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 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구식 위원** 국민의 반대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렴하는 절차는 전혀 밟지 않고 1월 26일에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3월 7일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역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일방

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실제로 결정이 된 과정은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랫동안의 검토와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구식 위원** 정부에서 하는 얘기이지요.

정부 논리는 시행령 사안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끝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최구식 위원** 국회도 관계없고 민간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1966년입니다. 66년의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영화도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여러 가지로 영화계의 현황과 현재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고심 어린 결정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최구식 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께서 스크린쿼터 문제는 오늘날에는 워낙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으로 둘 것이 아니고 입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법안을 제출해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동 발의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마 위원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정부정책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철 위원** 이광철입니다.

연초부터 양극화 해소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비단 경제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화 분야의 양극화는 실제 눈으로 보이지 않고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제 양극화의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맞습니다.

○이광철 위원 지금 전 세계가 상상력을 기초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지식·문화·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존경쟁이 아주 치닫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 양극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상상력을 키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로 발생하는 상상력의 양극화, 문화적 양극화는 심각한 우리 사회의 병폐로 존재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동의합니다.

○이광철 위원 문화 향유 양극화, 상상력의 양극화는 지금 사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를 보면 3/4분기 최상위층 계층의 한 달 평균 소비지출 380만 원에 비해서 최하위계층은 91만 원 정도로 한 4.1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상위층이 교양·오락 분야에 28만 원을 쓴 반면에 최하위계층은 3만 원도 못 되는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비로…… 그러면 상·하위계층의 지출이 보통 소비에서는 4.2배인데 문화 소비 격차는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광철 위원 앞에서도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최하위계층에 대부분 기초예술인들이 속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맞습니다.

○이광철 위원 소외계층에 곧 기초예술인이 포함되고 있는데 문화예술인 출신으로서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습니까? 지금 문화의 시대, 문화의 세기, 문화의 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상상력의 양극화, 문화 소비의 양극화, 또한 예술장르 간의 양극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 소비의 양극화, 그 다음에 열악한 기초예술인들에 대한 생존 문제, 생계 문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극인복지재단 문제라든가, 창작자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가 문화 나눔, 여러 가지 계층 간, 국민들의 문화 나눔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문제는 제가 좀더 집중적으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예산 문제에서부터 제도적인 문제 등등을 연구해서 최대한 전력을 질주해 보겠다……

○이광철 위원 문화예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의 문제, 과제의 문제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습니다.

○이광철 위원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우상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예술인들의 생활 정도는 사실 심각합니다. 문화예술을 위해서 공사장 잡부로 나가야 하고 밤에는 제대로 연습을 못 하면서 문화의 질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기초예술인들에 대한 생활고의 문제는 눈물겨운 과정이라는 것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맞습니다.

○이광철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께서도 문화예술인창작촌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교원공제회 있고 군인공제회 있고 과학기술공제회 있고 교수공제회도 있습니다. 문화예술인공제회, 이것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술인공제회 설립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철 위원 계속 미루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라든가 주변 상황, 여건 때문에 아직 실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이광철 위원 취임 일성으로 약속 한번 하시지요, 예술인공제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 위원 손봉숙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감사합니다.

○손봉숙 위원 2004년 ‘미르’지에서 “국립극장은 창 작품을 1년에 150일쯤은 반드시 올리는 게 좋겠다.” “스테이지쿼터제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6년간 국립극장장으로 있으면서 국립극장은 1년에 창 작품을 며칠이나 올렸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확하게 매년 통계는 알 수가 없지만 저희 국립극장은 임무가

민족예술의 창작 쪽에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단체들이 올리는 공연은 거의 다 창작품입니다.

○손봉숙 위원 그러니까 150일 정도는 채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150일 정도는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손봉숙 위원 또 2005년에도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인 스크린쿼터처럼 창작예술 의무공연제라도 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통문화와 기초예술에 대한 쿼터제를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정자께서 문광부장관으로 취임하면 본인의 평소 소신대로 전통문화와 기초예술에 대한 쿼터제를 실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것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예술과 관련된 신념이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신중하게 한번 궁리를 해 보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지요.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소신이었으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국산영화 의무상영에 대한 스크린쿼터제와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스크린쿼터제는 정부에서 고심을 다해서 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문화예술인이 장관이 되셨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자’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 스크린쿼터는 폐지를 한 것이 아니고 축소를 한 것이고요, 그 날짜가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손봉숙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부를 향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의지를 밝혀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이미 정부의 한 각료가 된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봉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장관이 되면 정부가 시키는 대

로 따르는 게 정부 장관의 할 일입니까? 자기 소신이 있고 정부 의견하고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아니요, 스크린쿼터가 폐지된 게 아니고 스테이지쿼터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손봉숙 위원 그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제가 그걸 몰라요? 제가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장관님보다 더 잘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장관이 쿼터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다면……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장관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평소 소신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향해서 ‘저는 평소에 이런 소신이 있었는데 이미 결정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하는 말씀이라도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느냐고요?

‘예스, 노’로만 대답하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정부 정책에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봉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군요.

국립극장이 수익성을 올리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업성은 없지만, 돈은 안 되지만 중요한 우리의 전통문화와 창작작품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는 국립극장 경영 방침에서도 늘상 강조한 것이 예술성과 수익성, 효율성 이렇게 세 가지……

○손봉숙 위원 다 올리면 좋지만 예술활동을 해보셔서 알지만, 정말 좋은 작품인데 상업성이 낮은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립극장이 수익을 올리는 데 너무 급급하다 보면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보존하고 육성하는 데는 굉장히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봉숙 위원 위험한 게 아니라, 정책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세 가지의 적절한 배분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손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오 위원 제가 한 30초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미경 시간 안에 같이 포함됩니다.

○이재오 위원 포함돼요?

후보자!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이재오 위원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소신대로 천천히 답변하세요. 그렇게 쫓기듯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이재오 위원 후보자는 평생을 예술가로 남기를 원해요, 무슨 장관이나 행정가나 정치인 비스름하게 남기를 원해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글썄요, 예술가……

○이재오 위원 후보자 직업이 연출가나 배우 이런 거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오 위원 예술가는 잘 아시겠지만 상상력과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장관이나 국무위원 이런 것은 정치적 판단이나 행정력을 요구합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를 소신적부터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나라의 불후의 영화를 만들거나 배우를 하는 그런 예술가로 남기를 제가 고대하고 있으니, 장관이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언젠가 그런 좋은 예술을 남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감사합니다.

○이재오 위원 그리고 후보자의 평소 소신과 스크린쿼터 축소문제, 문광부 혁신 및 역점 추진 방향, 문화관광부 명칭 변경과 효율적인 조직 개편 문제, 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 개발 대책 문제,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정책 확대 방안 문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복안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후보자가 밑의 사람 시켜서 쓰지 말고 구술로, 후보자의 음성으로 녹음을 해 가지고 녹음테이프를 저한테 임명 전까지 보내 주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재오 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직접 음성으로 구술해서 보내세요. 임명 절차 끝나기 전에……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오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래 위원 정청래 위원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내정 소식에 언론에서는 상당히 많은 혹평을 했습니다. 예전의 스타 배우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스타 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손봉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의 입장에서는 “스크린쿼터를 넘어 스테이지쿼터까지 필요하다, 대형 백화점과 구멍가게의 싸움을 우리가 방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2006년 또 잡지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 내정자 신분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소신을 위해서 장관직 제의가 있었을 때 고사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는 이 문제를 저의 가장 괴로운 고민거리로 안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스크린쿼터 문제 관련해서 격랑의 파고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인의 소신과 정책 집행자인 장관으로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정청래 위원 저는 개인의 소신을 접어야 장관으로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뛰어난 스타 배우 예술가가 하나의 소신을 접는 아픈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사를 했으면 더 멋있는 김명곤으로 비추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산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우

리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인권 민주주의, 통일 이런 부분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문화산업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 문화예산을 99년 대비 494% 증액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한류를 꽃피우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2만 불, 3만 불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문화산업이 기여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는 문화산업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짧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문화산업이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문화관광부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와도 연결된 업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직을, 새로운 청을 만든다는 것은 정부 조직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정청래 위원 올해 주요한 제 의정활동 목표 중 하나가 문화산업청 신설입니다.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털어서 먼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MW 주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주 소액입니다. 56주에 120만 원인데요, EMW는 장관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중복되고 많은 의혹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MW는 DMB 용 안테나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적은 액수지만 처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국립극장장을 그만둔 지 2월달에 집사람이 생계 불안을 걱정해서 이것을 잠시 그냥 친구 권유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팔았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리고 미디어 기관 통합 문제라든가 제가 문화관광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세 위원 문광부장관으로 이렇게 내정이 되시면서 지난날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즉 반추해 봤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천영세 위원 혹시 본인께서 81년 이후 불란서 미테랑 정권하에서 일명 문화대통령으로까지 일컬어졌던, 문화적 예외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써서 지금 문화다양성협약을 이끌어 냈던 어떤 기초를 만든 자크랑 장관 같은 그런, 문화국가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사에 남는 그런 문화부장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앙드레 말로라든가 자크랑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평소 존경하고 저 역시도 그런 분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 연장에서요, 앞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지난번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은 그냥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적절하고 잘된 일이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적절하고 잘된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고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영세 위원 적절한 조치였다고 표현도 하셨는데 만약에 장관 내정이 안 되셨고 밖의 극장장으로서 아니면 그냥 예술인으로서 남아 있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영화인으로서, 배우로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한다 하는 개인적인 입장은 이미 제 전의 글이라든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영세 위원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 과정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속에서 영화인들과의 협의 문제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영화 축소를,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영화인들과 협의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정부가 쌀 개방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던

농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회비준 과정에서도 역시 협의를 안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난 결정 과정에 어떤 문제의 잘잘못을 제가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만 저는 정말 최대한으로 영화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지금 영화인들의 주장은 스크린쿼터 결사 사수, 이것 아니거든요. 일단 정부가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축소한 그 부분을 철회하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런 요구거든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영화인들과 좀더 깊이 있게 대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영세 위원 현 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정권의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바탕 속에서 시정하고자 하는, 바로잡기 위한 그런 철학과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스크린쿼터 이후에 문화다양성협약 이것이 자꾸 상충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그렇게 믿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문화다양성 문제에 대해서는 스크린쿼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 과제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좀더 본격적으로 영화인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영세 위원 예, 오후에 다시 연장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숙 위원 예, 강혜숙 위원입니다.

우선 현장 예술가에서 문화행정의 수장에 오르시게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김명곤 내정자의 작품을 많이 보았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국립극장장으로서 일해 오신 과정을 보면서 내정자의 철학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선서를 하실 때 기초예술의 공적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기초예술보다는 문화산업 쪽에 무게중심이 자꾸 옮겨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산업이 당면 문제라면 문화와 예술은 천년대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세기에 본 위원은 앞으로 문화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문광부의 직제를 볼 것 같으면 작년 직제개편을 하면서 문화산업 분야는 국이 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술국은 오히려 축소되어서 과가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문화산업진흥국이 문화산업국, 문화미디어국 이렇게 늘어났고 예술국은 전통문화과가 없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곳곳에서 지적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2005년에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고 산업 분야는 늘어나고 예술 분야는 축소되었고, 올해는 간극이 더 벌어졌습니다. 산업 분야는 더 많이 책정이 되었고 예술 쪽은 줄어들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기초예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기초예술과 전통예술의 뿌리가 튼튼해야 경제·문화·산업들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이라든가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저의 철학을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차츰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그리고 전통문화과를 없앤 것은 문광부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천 년 우리 민족의 뿌리이고 정체성이고 그리고 창조의 원천이고 전통문화는 영감의 보고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전통문화는 국으로 승격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최소한 과를 복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 문제는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고 조직 개편에 대한 배경도 제가 좀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그리고 작년 11월에 문광부 명칭을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바꿀 것에 대한 공청회도 올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체육도 중요하기

는 하지만 이랬을 때 기초예술과 전통문화가 더 작아질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제는 문화의 분야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체육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기조를 지금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더 살펴봐 가지고 기초예술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예, 기초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 예, 정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장관내정자께서 발표가 됐을 때 ‘과연 우리 김명곤 장관내정자는 왜 장관을 하려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예술인으로서 예술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접 집행자가 되어서 한번 변화를 시키고 또 새롭게 문화예술 정책을 세워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 오늘 인사 말씀이라든가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그러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것이 단순히 그런 어떤 의지 표명보다는 지금 또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답을 통해서 이것이 명예욕 때문에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인으로서, 배우로서 가장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부분들이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한 축소 아납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를 보나……

○정병국 위원 내정자께서는 지난 2005년 10월 24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한국 문화의 세계화’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정병국 위원 당시 내정자께서는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각국의 문화가 초강국인 미국의 문화에 흡수되기 시작한 현상에 반발해 유네스코가

제정한 것이 문화다양성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각 나라, 각 민족이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 조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정병국 위원 그리고 “협약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 사례 중 하나는 스크린쿼터 제도다. 문화다양성협약의 정신에 비춰 보면 스크린쿼터는 정당하다” 그리고 “나는 스크린쿼터는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자는 것이지 국내의 영화산업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 2005년 10월 내정자께서는 ‘21세기 문화 한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글을 작성한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정병국 위원 내정자께서는 그 글에서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는 문화다양성협약 투표 직후에 가진 의견 발표에서 미국이 반대했던 제20조가 기타 국제 협정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거나 변경·손상하는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명을 내었다.

우리 정부가 찬성표를 던졌다면 미국과의 불편한 모양새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용기를 보였어야지 후에 분명히 발생할 문화 산업에 대한 미국과의 마찰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를 말을 내뱉은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정병국 위원 그리고 그 글에서 문화 한국 건설의 과제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민족 자율성과 문화적 역량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문화 다양성의 지향이라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내정자께서는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결정은 대외 통상협정의 변화와 한미 FTA 협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들의 답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한 각료가 되는 입장에서 이 뜻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하신 데에 동의하

신 바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현장에서, 현장의 배우의 입장에서 스크린쿼터 제도 유지해야 된다,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 미래 성장동력으로서도 우리 영화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의지가 담겨 가지고 스크린쿼터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 내가 장관이 되어서 잘못된 결정 바뀌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장관이 되어서도 이미 국가적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일 이니까 그것 수용할 수밖에 없고 내 뜻을 접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내정자께서는 어떤……

장관을 통해서 문화예술정책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장관이나 해보겠다라고 하는 명예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내정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는 단순한 명예욕으로 장관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영화문 제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많은 문화 행정을 정말 집행자로서 소신 있게 한번 해 보는 그러한 기회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내정을 수락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 본인의 뜻을 꺾지 마시라는 것이 고……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영화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정말 영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임기 동안에 정말 최대한 노력했다는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진 위원 예, 우선 내정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감사합니다.

○이계진 위원 지금 힘드시지요?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 내정에 대한 소감에 대해서 “잠시 나 개인을 희생하고”라는 표현의 소감을 얘기하셨다면 서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이계진 위원 싫으신 건 아니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지요.

제가 그때 내정할 때, 내가 이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연극도 하고 예술 현장으로 돌아 왔는데……

○이계진 위원 이제 불행한 시기로 들어간 것이 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다시 또 행복을 줬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명으로 알고……

○이계진 위원 “희생”이라는 말을 보고 생각한 것이 뭐 희생까지 해서, 평양 감사도 나 싫으면 그만이다 이러는데 그만두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만약에 제가……

○이계진 위원 서운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일을 하다가 정말 제 소신과 어긋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서슴없이 그만 둘 생각입니다.

○이계진 위원 고맙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이 장관이 되시면 주무사항 중의 하나인데 동계올림픽이 지금 지역올림픽으로 잘못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국가적인 대사로 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이계진 위원 얼마나 힘쓰시겠는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진 위원 뭐, 간단하게……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번에 ANOC(국가올림픽연합회) 행사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국제사회에 우리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결정이 되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계진 위원 내년에 결정되는 것으로, 안 되면 혹시 장관자리 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약속……

○이계진 위원 웃음으로는 안 되는데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약속을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제가 전심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저는 또 강원도위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월드컵과 하계올림픽을 열었던

국가로서는 꼭 열어서 구색을 갖추면 세계무대에서 한국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평창 산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올림픽 문제를 꼭 중요한 일로 생각해서 내년에 반드시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요, 만약에 되면.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요덕스토리’라는 뮤지컬 혹시…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보지는 못했고……

○이계진 위원 보지는 못하셨고,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뭐 기회가 되면……

○이계진 위원 기회가 되면……

최근에 나왔던 좋은 영화들 많이 보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다 보지는 못했고 화제가 되는 작품들 몇 개를 봤습니다.

○이계진 위원 특히 내정자께서는 연기도 하시고 예술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덕목을 다 갖춘 그런 분이신데, 글도 쓰셨고, 시나리오도 만들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봤는데 대단히 훌륭한 뮤지컬입니다. 이것이 무슨 반공, 사상, 그런 이념을 떠나서,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울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성만 봐도 대단히 높은 것인데, 제작과정에 대단히 방해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을 중시하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뭐 신문에 난 정도 말고는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제작과정에 그런 뭐, 있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계진 위원 앞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원을 하실 의사도 있으신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지원은 또 지원단체가 있고……

○이계진 위원 지금 상당히, 대관을 못 할 정도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거기에 따른 심의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계진 위원 꺼리고, 나가 달라고 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하려다가도 취소한다고 그러고,

압력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실을?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한 예술작품이 제작과정이라든가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진 위원 부당하지요? 대단히 예술성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한 번 봤거든요.

시간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김재운입니다.

프랑스 드골내각의 문화부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처럼 문화 중심의 사회 발전 구조를 만드는 장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감사합니다.

○김재운 위원 이창동 장관은 ‘창의한국’, 그리고 또 정동채 장관은 ‘C-코리아, 문화강국 2010’으로 정책의 지표, 비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김명곤 장관 내정자께서는 어떤 정책의 비전과 철학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창의한국이라든가 C-코리아 2010의 내용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 제안자들이 제안을 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화정책과 철학에 대한 부분을 재수정을 한다든가 좀더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문화비전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지금 이 시간에도 문화관광부 앞 열린마당에서는 영화인들이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방침 이후에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한미 FTA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명곤 장관 내정자께서는 서편제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할 만큼 우리에게 훌륭한 영화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스크린 쿼터는 유지돼야 한다는 그런 개인의 소신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도 한동안 영화인이었고, 영화로부터 은혜도 입었고, 또 지금 영화인들과도 동료 또는 선후배로서 서로 사랑을

하고,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간절하게 희망을 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입장을 장관으로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앞으로 정말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3월 13일 미국무역대표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주한 미상공회의소는 방송의 소유 제한을 풀 것, 방송 쿼터를 풀 것, 광고시장을 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미 FTA가 실질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면 방송 쿼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 내정자로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FTA 협상을 주체적으로 하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 부분, 특히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 쿼터 문제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작년 10월 20일 유네스코에서는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문화다양성협약은 정말 다양한 우리 문화의 존중, 특히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문화다양성협약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힘을 더더욱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다양성협약은 30개 국가의 인준을 받아야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문화다양성협약에 찬성을 했고, 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주무부처가 바로 문화관광부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문화다양성협약 국회 비준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하고,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장관 내정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문화다양성협약이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비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문화올림픽인 ‘텔픽’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텔픽을 우리나라에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의 우월성과 독창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유치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전 세계의 문화예술인들과 시각예술, 많은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한 자리에서 문화올림픽과 같은 행사를 하는 국제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앞으로 우리 한국 문화의 국제 교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환 위원** 우선 ‘서편제’에서 감동을 아주 많이 주었던 김명곤 장관 내정자에게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감사합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장관은 사실 배우나 예술가와 좀 달라 가지고 공직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내정자께서 그동안 했던 일들을 제가 좀 받아 보니까……

국민연금 채납에 대해서 아까 지적한 바가 있고, 이력서 허위 기재에 대한 것도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해서 국회의원 두 사람한테 후원금을 주신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교통법규를 일곱 번 위반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소득추소 신고에 대한 의혹이 종합적으로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김충환 위원** 이것은 나중에 좀 따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니까 공직자가 아니고 극단의 무슨……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기획홍보 담당자입니다.

○**김충환 위원** 예, 홍보 담당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소송 업무를 진행하도록 시켜서 이게 또 문제가 됐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입니다.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또 나오시기 직전에 무용단 PD를 6급 상당의 무대건축직으로 임명을 하고 나오셨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김충환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후임 극장장으로부터 다시 원대복귀가 되도록……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김충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일곱 가지 사항을 볼 때, 전의 손숙 장관 내정자가 말하자면 예술가로서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공직자로서의 규범에 맞지 않아 가지고 관두었던 일이 기억이 나서 혹시라도 훌륭한 예술가가 장관 내정되자마자 또 문제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충환 위원** 답변은 지금은 시간이 짧으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력서를 허위 기재했다는 말씀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충환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좀 듣도록 하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대표가……

○**김충환 위원** 장관 내정자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만 하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정자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문화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동서 문화 교류, 또 한국문화가 주로 서구, 특히 미국문화에 너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 문화를 유럽이나 서구로 보내 주는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동의합니다.

○**김충환 위원** 저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페인에 가 보니까 밀레니엄 합창단이라고 한국의 민요를 공연하는 스페인의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문광부 국장한테 그 얘기를 해 주었더니 내가 말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문서로 답장 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장관 내정자께서는 평소의 철학으로 볼

때 우리 문화를 서구에서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문화단체에 관심을 좀 가질 의향이 있으신지?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한국문화의 세계화, 또 국제 교류를 위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가지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배경을 좀더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충환 위원** 아니, 저는 관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김충환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양극화하는데…… 소득 양극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문화 양극화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인 이상 짐승처럼 밥만 먹고 살 수가 없다면 소득 양극화 문제만큼이나 문화 양극화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2004년 기준으로 한 920만 명대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와 최하위 10% 소득으로 볼 때 계층의 문화소비지출 격차가 10배 정도 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 양극화 극복 대책, 해소 대책이라면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도 약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애인, 소외계층, 고령 노인 또는 병영, 이런 곳에 문화를 나누는 문화나눔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0만 명에 달하는 문화 소외계층의 수와 양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것을……

○**노웅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눔사업이나 문화교육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전부 피동적인 문화 소비자로서만 간

주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소외계층들이 창작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도 마련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도 함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노웅래 위원 문화관광부가 주무부처로서 서울시에서 매년 공공 체육시설 현황 자료를 받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받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자료를 받았는데…… 공공 테니스장이 47개인데,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받았는데 46개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1개를 정보를 빠트리고 안 받은 게, 이명박 시장 황제 테니스 의혹받고 있는 남산테니스장 정보만 빼고 받으셨어요.

이것을 빼고 받은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사실 관계는 제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제출 안 했으면 왜 제출 안 했는지 문제를 제기했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래야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제출 안 했는데도 그냥 눈 감았으면 직무유기나 업무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문제는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웅래 위원 다시 확인하시고요. 왜 안 받았는지, 지금은 받았는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서초동·잠원동 학교용지에 탈법으로 테니스장 건립한 부분도 이것이 공공교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해놓고 샤워실, 락커룸, 미니바…… 이것을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웅래 위원 판단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 문제는 전문적인 담당자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웅래 위원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말씀하셔야지요. 정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노웅래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년에 오페라 보통 몇 편 보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오페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연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오페라 몇 번 보셨어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몇 번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특히 국립오페라단에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민간 오페라단에서도 초청 받게 되면 가서 보곤 합니다.

○노웅래 위원 여하튼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 경북 경주 출신 정종복 위원입니다.

장관 내정자께서는 현장 문화예술 출신이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남다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정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문화정책 주무장관이 되는데 문화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의 전문적 지식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식견이 어느 정도 될지 걱정되는 바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 문화정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정종복 위원 우리나라는 신문법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신문·방송의 겸영이나 교차소유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현재 미디어시장을 보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뉴스 등을 교차소유하는 복합미디어그룹이 늘고 있고 또 이러한 미디어그룹이 세계 미디어시장을 재편하려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문시장을 보면 이러한 미디어시장의 국제적 추세라든지 인터넷 미디어 등 뉴미디어가 출현함으로써 그 영향력이라든지 겸영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신문법에 시장점유율까지 제한하고 있어서 신문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공익적 특성이 강하고 다양한 의견이 표명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시장의 원리 속에서 자유로운 경쟁이라든지 경영환경 조성까지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장관내정자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의 경영을 계속 금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하지 마시고 오후에 남은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장관내정자에게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광고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방을 양허해야 할 것인지를 물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미디어분야에서의 개방 문제는 정보주권과 문화정체성 보호, 국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금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해 왔어요.

아시다시피 광고 서비스분야는 이미 94년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국내 광고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개방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장관내정자께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 광고영업은 방금 얘기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광고분야를 완전히 개방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KOBACO에서는 지금 완전히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정종복 위원 이런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방송광고시장에 제한적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정종복 위원 과연 이것도 맞는지, 만약 외국 기업이 WTO에 제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두 위원 정치와 예술, 정치와 체육, 정치와 문화, 정치와 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확하게 그 전체는 아니지만 틈틈이 고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위원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문화예술체육축제가 정치의 도구화가 되면 안 되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평소 소신은 그런 편입니다.

○민병두 위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세계에 알릴 만한 축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글썄요, 국제공연예술제도 있고……

○민병두 위원 서울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이고 기억할 만한 축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더니 하나는 이한열 장례식이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월드컵 거리응원전이었다고 합니다.

이한열 장례식 같은 경우는 이애주 교수의 한 풀이 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우러진, 축제는 아니었지만 결국 그 장례식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시민들한테는 축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월드컵 거리응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 스스로가 만든 축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 국민이 다 참여한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서울 페스티벌 한번 보셨어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주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민병두 위원 제가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갔더니 바자회 천막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 관변단체, 어디 부녀회, 관악구 새마을부녀회, 어디 바르게살기 무슨 부녀회, 죄송합니다. 한나라당 강동구 당원협의회, 어디 당원협의회, 제가 딱 들어갔다가 ‘이거, 내가 들어갈 장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축제를 준비하고 공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광장은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 거리응원을 하게 되면

서 선정을 하게 되면서 SKT 컨소시엄에 준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민병두 위원 SKT가 서울문화재단에 30억을 별도로 내기로 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민병두 위원 서울문화재단이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주관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이명박 서울시장이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기금을 한 3000억 정도 모으려고 하고 있지요, 각종 기업으로부터 매년 수십억씩 협찬을 받고 있지요.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서울시민들이라고……

○민병두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보세요. 이번 5월에 가서 보시면 텐트에 다 그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뭐냐, 불법대선자금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한나라당 지지자와 핵심 지지세력들을 갖다가 결집해 가지고 그들만의 잔치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세나운동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인 축제에 혹은 공연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것과 서울시의 교통카드를 협찬한 업체가 매년 얼마씩 내고 서울시의 예산을 위탁 관리한 은행이 매년 얼마씩 내고, 이런 일련의 행사들은 어떻게 보면 차기 대선과 관련된 보험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아서 차기 대선을 위한 조직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축제 내용이라든가 서울문화재단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위원 저는 중요한 것은 예술과 체육, 문화 이런 것들이 정치의 도구화가 되면 안 되겠다, 마치 국풍 같은 것을 연상하게 해요.

이번 황제테니스도 보면 결국 스포츠, 체육인들을 갖다가 정치인의 기쁨조, 정치의 도구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되시면 정치와 문화 예술축제와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준 위원 장관 청문회가 장관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는 듯한, 이렇게 이용되는 데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평소 광대론을 주창하셨지요? 광대라고 생각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박형준 위원 광대는 한을 풀고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국립극장장을 하시면서 마당극 광대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부장관은 마당극 광대 수준이 아니라 정말 21세기 디지털 광대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관광부의 위상이 정부에서 어떤지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형준 위원 초라합니다.

스크린쿼터가 왜 안 되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의 위상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소신을 바꾸셨잖아요. 소신을 바꾸서 가지고 문화관광부장관이 되어서 이 초라한 위상을, 소위 문화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부 내의 위상은 형편없는데 그런 소신과 철학을 자꾸 접으면서 어떻게 그 위상을 높이시겠어요? 결국 권력 해바라기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 내에서 역할을 하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약

한 광대가 아닙니다. 강한 광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냥 정부 정책이나 쫓아가고 소신을 버리는 이런 장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신 있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한 광대를 원합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좋은 충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더 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위원 강하게 하시면 도와 드릴게요.

지금 문화부가 다루는 일 중 예술 분야는 사실 부분입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일이 있거든요.

혹시 ‘디지털 컨퍼전스’라는 말을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확히는 모르지만 들어는 보았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 분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온라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의 차이를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게임, 디지털 콘텐츠, 스포츠, 관광, 다루어야 될 분야가 만만한 분야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공부와 지식, 전문성을 얼마나 갖추고 계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술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이 검증이 안 되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장을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도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영역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정책집행을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문광부 정책의 문제점의 하나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그다음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신문유통원 문제를 법안심사소위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통과할 때부터 문광부장관이 누차 이것은

민간과 함께 매칭펀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신문유통원은 정부 돈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신문유통기구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헌이 돼요.

문화관광부 정책의 앞과 뒤가 다른 점,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신문유통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이런 것을 어떻게 바로잡으시겠어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논란거리가 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문제와 공익성의 문제……

○박형준 위원 어쨌든 다시 검토하시고, FTA 관계에서 지금 스크린쿼터제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까마는, 내 주었지만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적소유권 문제,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소신을 갖지 않으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땅투기 의혹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주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몇 년도에 있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작년……

○안민석 위원 우리나라에 태권도공원을 건립하겠다는 발표가 2000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천, 경주, 강화도 등등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신청을 해서 몇 년도에 무주로 결정되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2004년입니다.

장관 내정자께서 무주의 땅을 구입한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구입하기 시작한 시점이 97년도, 98년도부터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관님의 무주 땅하고 무주 태권도공원하고는 아무런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전혀 개연성이 없고 본래 설립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국의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시에 있는 체육시설이 정확하게 1524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서울시의 1500개에 달하는 체육시설은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딱 한 가지 시설을 서울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번에 문제가 된……

○**안민석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창동의 테니스코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개 시설을 다음달에 서울시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아까 얘기 하실 때 말씀 들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잠원동 테니스코트장입니다. 1500개에 이르는 체육시설 중에서 유독 창동 테니스코트와 잠원동 테니스코트를 서울시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과 관련된 독점적 접대용·로비용·VIP용 시설이라고 의혹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건 관련해서 검찰조사 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에 서울시체육회장과 서울시체육회부회장을 문화관광부에서 해임조치라든지 유사한 적절한 조치를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불행하게도 서울시체육회장을 문광부에서 해임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체육 구조가 이렇게 모순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서울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이고 대한체육회는 정부의 산하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서울시체육회장에게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는, 조치를 할 수 없는 굉장히 파행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장관님께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체육단체 구조 개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체

육계 인사들, 국민 여러분, 연구진들, 또 많은 단체들의 의견을 더욱 더 청취하고 좋은 방향이 되도록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를 소신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정확하게 구조 개편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KOC를 통합하느냐 분리하느냐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것은 별도로 두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그리고 엘리트체육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체육·건강이 발전된다, 그 원칙에는 동감을 합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 종합단체가 필요하지요.

마지막으로 이력서 허위 기재 관련된 해명을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력서는, 97년도에 제가 극단대표를 방은미 대표에게 물려줬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방 대표가 교통사고로 목에 중상을 입어 가지고 약 1년간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서 제가 대신 대표 노릇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극단대표 노릇이라는 게 무슨 경력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단원들과 함께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며 봉사하고 자기희생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서 극장장 응모에 어떠한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만약에 서류상으로 미비가 됐다면 그것은 그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숙 위원** 박찬숙입니다.

내정자께서는 혹시 ‘강남 좌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글썽요, 정확하게 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숙 위원** 이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할까 그런데요. 생각은 좌파인데 생활수준

은 강남 수준이다 이런 얘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국립극장장 이전이던 90년에는 연소득이 2, 300만 원, 은행 대출금 수 천만 원에 이르렀다, 또 98년의 경우는 공연수익금이 전혀 없어서 적자가 발생하고 소득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99년에 경기도 죽전에 47평 아파트를 소유하셨고요. 배우자하고 자녀가 일본으로 일주일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8·31대책 발표 직전 2005년 4월에 대치동 아파트를 구입하셨거든요.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의 입장으로 보면 대책점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국정철학을 전파해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딜레마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98년도에는 제가 공연했던, 제작했던 공연이 적자가 와서 확실하게 적자가 됐었고요. 일본에 간 것은 일본영화제 ‘유바리’라는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주빈으로 초청받아서 온 가족이, 그 경비를 그쪽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대치동 아파트는 제가 산 게 아니고 전세로 들어간 것입니다.

○박찬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제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이것입니다.

배우자와 딸이 도곡동으로 전입하신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박찬숙 위원 2001년부터 3년까지 은마아파트 30동에 살고 계셨는데 2002년 3월 15일부터 2002년 8월 26일까지 다섯 달 동안 강남구 도곡동 457-12 5층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부인께서 세대주를 구성하셨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나 하면 딸이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게 설명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분당에서 같이 살던 친구가 저희들보다 먼저 이사를 왔는데 아이가 친구하고 같은 학교에 배정을 받고 싶어서……

○박찬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셨는데

요. 그 가운데 다섯 달 동안에 무려 한 달 동안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부인하고 공부에 전념해야 될 딸이. 그렇다면 이 답변하고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미국에……

○박찬숙 위원 그러니까 다섯 달 동안, 도곡동으로 옮긴 그동안에 한 달을 미국 여행을 가셨어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여행이 아니라 엄마 친구가 미국에서 어학을 공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아이와 함께 엄마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러면 집중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는 말씀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거주한 적이 있다, 도곡동에 거주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해 봤더니, 주인이 아직도 4층에 살고 있는데 거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이……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아니, 거주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시절인데, 고등학교를 친구하고 함께 같은 주소에서 배정받고 싶어서 엄마가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에 제가 그것을 알고……

○박찬숙 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임대차 계약인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옮긴 그 자리에는 사진 적이 없다고 지금도 전화해 보시면 그 집주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위장전입의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제가 다시 우리 주소로 옮기라고 해서 옮겼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러니까 살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기신 거죠?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리고 학교 배정은 저희 주소지에서 그다음해 1월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엄마와 딸의 생각에는 친구와 같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 그러한 편법을 썼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정말……

○박찬숙 위원 봉사활동확인서에도 따님이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고 국립극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사실에 대해서도 극장 측 직원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박찬숙 위원 서류하고 현실하고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학생들의 봉사가 얼마나 하는 것은 위탁받은, 연구한 교수님께서 처리를 해 주신 사안입니다. 국립극장에서 처리를 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미경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에……

○박찬숙 위원 예,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원호 위원 윤원호입니다.

우선 내정자로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립극장장으로 계시면서 보여준 기관운영 성과는 본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조정 역량이나 타 부처와의 업무조율 능력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신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그런 점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진실되게 열성을 가지고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정치적인 조정이라든가 타 부처와의 협력관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문화관광부는 정책수행상 문화산업은 산자부 정통부 외교부, 또 지방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지자체까지와도 협의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잘 수행하실 수 있으신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어쨌든 제 온 힘을 다 바쳐서 정말 전력질주를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문화관광부 직원들이 이런 정치적 비중이나 역량 때문에 문화관광부 직원들에 대한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역량이 있나 이런 우려도 한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무튼 그 부분의 우려를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문제의 방어막이 되고 또 더욱더 많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 능력껏 소신껏

일을 해 보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비전문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해서 시간이 모자라면 오후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산업 모태펀드 운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것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기금들을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면서,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원호 위원 실무자는 너무 수익 위주로 가려고 하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운용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살펴봐 가지고 지나치게 수익 위주로 또는 상업적 판단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문화산업 모태펀드는 수익성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문예진흥기금이 앞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확충 방안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복권기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기금들을 좀더 활성화해서 지금 부족분, 앞으로 예상되는 고갈 재원을 확충하도록 최대한 아이디어를 짜보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다음 남양주 종합촬영소 부산 이전 문제입니다. 예정자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앞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영상도시로서 앞으로 미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적절한 기획으로 논의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데 남양주 촬영소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지금 매각이 불가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문제는 제가 좀더 파악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계진 위원님께서 요덕스토리 얘기를 했습니다. 탈북자 정성산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장관님께서서는 저는 정말 문화예술의 생산자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 그러셔서 제가 약간 섭섭했습니다. 정성

산 감독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들어 보시고 그런 쪽에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 위원 이재웅입니다.

김명곤 장관내정자께서는 본인이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평소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주변에서 판단할 텐데……

○이재웅 위원 아니,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 나름대로는 소신껏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나름대로 소신이 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이재웅 위원 그런데 3년 전 어느 특강에서 앞으로 문화관광부장관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신 적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랬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랬었지요. 그것을 3년 만에 바꾸셨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렇게 된 셈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다음에 스크린쿼터 문제도 이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소신을 강하게 밝히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이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생각이 바뀌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이재웅 위원 소신이 상당히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하나 더 좀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20년 넘은 장관내정자의 글이라서 또 소신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문화재니 전국민속경연대회니 하는 제도로서 국악인들을 정부 행사와 홍보에 동원하는 체제로 묶어둔 것이라든지 창극이나 판소리 공연 내용을 충효를 찬양하고 고무하도록 권장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일체의 문화통치에 의해서 생겨난 독소의 잔재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

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말 20년 전에 쓴 글을 이렇게 되새겨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기조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그것도 바뀔 수 있네요?

인간문화재라는 제도를 없애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당시에는 그러한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병폐라든가 부작용을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자로서 이 제도를 갑자기 없앤다든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그 당시의 생각으로서도 창극이나 판소리에서 충효를 고무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한 것들이 이용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한……

○이재웅 위원 장관내정자의 소신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면…… ‘본인은 예술이 정치와 한몸이 되는 것은 정치의 도구나 시녀가 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 점도 분명합니까? 그것도 바뀔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치의 도구나 시녀는 지금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그래서 안 되겠지요? 그 소신은 확실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이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소신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양극화 문제를 논의하는 판소리나 창극을 권유하지 않을까, 본인을 장관으로 임명한 이 정권이 양극화 문제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문화관광부의 시책으로 내려 보낸다면 충분히 판소리나 창극이 양극화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글썽, 그런 문제는 아직 생각을 해 보지 않은 문제라서……

○이재웅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관내정자의 생각을 보면 소신이 왔다갔다 하고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특히 정권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강조하면서도 충분히 이 정권의 도구나 시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아주 능수능란한 소신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만약 그렇게 보여졌다면 정말……

○이재웅 위원 앞으로 그런 점이 안 보이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제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예산회계법 제9조제2항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을 확정 발표한 불법적인 사실도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불법이라고 보고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웅 위원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러한 사실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좀더 확실히 파악을 하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 김재홍입니다.

국민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습니다.

○김재홍 위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육, 스포츠 향유권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균등하고 공정하게 개방적으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체육 주무장관으로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김재홍 위원 이명박 서울시장의 이른바 황제 테니스 사건은 이 같은 매우 중요한 국민들의 스포츠 향유권, 그 균등하고 공정한 가치를 독과점한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의 주무장관 내정자로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더구나 똑같은 케이스로 골프 운동을 하다가 문제가 야기된 이해찬 전 총리는 사

퇴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금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당이 검찰에 고발했습시다마는 저는 형사고발, 법적인 처리 이전에 정치적 결단으로 용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의 주무장관 내정자로서 국민의 균등한 체육시설 향유권을 보장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으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의 언어 이질화가 심각하지요? 남북 문화예술의 이질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이제는 통일부보다는 문화관광부에서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제는 남북 간의 문화교류, 체육교류, 예술교류의 모든 부분들, 특히 언어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홍 위원 남북 간의 문화교류도 이제는 문광부에서 전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남북 언어의 이질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문정책이지요. 지금까지는 표준어, 표준말 정책이 근간이었습시다.

그러나 그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지방언어, 방언, 사투리까지 다룰 수 있는 공통어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아마 국립 국어연구원이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소견이 어떠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특히 언어의 문제는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이질화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홍 위원 저는 정말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서울의 중류층이 사용하는 표준말을 중심으로 한 어문정책으로부터 좀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언어정책을 의미하는 공통어 정책으로 나가는 방향이 매우 전향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연구 검토하시고 정책적 지원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김재홍 위원** 두 번째로 역시 문화 이질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인데 남북 문화교류 협력 이것은 남북 경제교류 협력만큼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바로 문화예술시대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습니다.

○**김재홍 위원** 이 남북경제공동체기구 못지않게 남북문화공동체기구를 구성하고 추진할 용의와 구상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우리 남한과 북한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함께 나누고 공통의 어떤 정서를 확보하는 데 이 문화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홍 위원** 앞으로 그러한 비전과 방향으로.....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서 어떤 조직이라든지 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관계로 아마 김명곤 후보자께서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 답변시간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심재철 위원** 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 및 개인적인 품성이 어떤지를 따지는 것이고 또한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책적인 능력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니스가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테니스가 체육이고 체육이 바로 문광부 소관이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장관 후보자에게 빗대 가지고 물어보고 그것을 정치공세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후보자 스스로가 “그것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정동영 의장이 지난번에 느닷없이 WBC 야구 잘했다고 아침에 전화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내보인 적이 있습니다. 야구도 또한 체육입니다. 그 체육이 바로 정치에 이

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제가 만일 “장관 내정자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빗대서 얘기를 하면 그게 이 청문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관 후보자의 정책능력하고요.

제발 이 청문회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꼼꼼히 따지는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또한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국민들의 공정하고 균등한, 평등한 체육시설 향유권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훼손당했고 그것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체육의 주무장관인 문광부장관이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장관내정자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 검증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당 위원들은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인사청문회 즈음해서 정치적 논쟁의 장이 아니라 또 사생활, 무슨 도덕성을 빙자한 사생활을 파헤치는 장이 아니라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올바른 인사청문회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입장 발표문을 낸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청문회가 정말 매우 다듬어진, 발전된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두 시에 속개해서 추가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간사위원들과 협의해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 위원** 이광철입니다.

저는 오늘 12시부터 지금 2시까지 지역문화인

들하고 함께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사실 서울공화국이라 해도 다른 없을 정도로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한강의 기적도 이루었습니다. 서울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는 정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너무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고 서울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많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실제적인 대한민국의 비전이 뭐냐면 지역이라는 것 같고, 이제까지 서울공화국을 중심으로 획일화에 지역이 동원되고 지역의 개성과 자율이 빼앗겼던 부분이 이제 지역의 개성과 자율, 창의성이 회복될 때만이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문화,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참여정부가 갖는 국가 균형발전정책, 여기의 핵심적 내용은 지역문화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지역으로 내려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교육과 문화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지역문화진흥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문화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대에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철 위원 지역의 신문, 지역의 방송이 살아나고 지역의 예술이 살아나고 지역의 생활체육이 꽃피고 지역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지역이 화두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문화 향유력, 문화발전, 문화역량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지역문화진흥법인데요.

이렇게 결국 사람과 시스템이 돌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 예산 중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경제의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문화적 양극화와 문화적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떤 부분보다 지역문화 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배정하는

문제가 또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걸맞은 예산과 법과 여러 가지 구조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겠다는 의지의 내용을 좀 표현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제 평소의 소신도 지역문화의 창조적 역량, 또 문화 인력의 새로운 교육이라든가 재배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 보고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 역량들을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이고 환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흥법의 시행과 또 예산의 적절한 배분 문제를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지금 발의할 예정인 지역문화진흥법안의 3장에 보면 지역문화도시—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경주 역사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조성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그 도시의 특색에 맞는 문화도시를 건설해서 문화 강국으로서의 역할들, 그다음에 문화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장관께서는 고향이 전주잖아요?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에 대해 작년에 용역도 끝났고 올해 지정되는 과정인데 굳이 장관님 고향이어서가 아니라 경주 역사문화중심도시나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못지않게 특별법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개인적인 고향과의 인연으로 해서 전주를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얘기겠지만 전주가 전통문화의 중심도시로서 앞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가꿔야 된다는 원칙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는 역사문화중심도시, 부산은 영상문화중심도시 이렇게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지역을 적절하게 안배하고 개발을 하고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그런 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2년 동안 지역의 문화전문가들, 문광부에 있는 관계자들이 준비했던 지역문화진흥법이 발효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과 함께 여러 다른 지역들의 발전 방안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문광부 내에 지역문화를 위해서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지역에 대한 파나 국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 조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문화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미미한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술 전반에 있어서 전국과 지역이라는 부분에서 지역의 문화에 중심을 두면서 구조를 메우지 않으면 형식적인 것뿐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후보자의 무주 토지 구입이 저도 투기 목적은 아닌 듯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13평을 단돈 25만 원에 샀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213평이면 초등학교 교실 10개짜리 정도의 넓이가 되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심재철 위원** 그걸 어떻게 25만 원, 단돈 25만 원에 삽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저 혼자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그 당시 회원들이 아까한 2, 30명이 되는데 야산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산을 공동으로 2만여 평을 구매해 가지고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그때 구매한 가격이 200평당 그 가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방송이 나가니까 즉각 현장에서 농민한테 전화가 왔는데 당시 가격이 한 평당 2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213평에 25만 원이면 평당 1100원이네요. 대한민국 땅에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땅 있으면 저한테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말이 안 되지요, 그건.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글썽, 매매계약 때……

○**심재철 위원**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뭔가 가격을 축소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가격을 축소한 이유가 뭐냐? 바로 세금 때문이다.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육세 등록세 취득세가 있고 파는 쪽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줄이면 사는 쪽도 세금에서는 이득이 되니까 양자가 다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생관계 때문에 가격을, 대한민국에서 213평이나 되는 땅을 25만 원, 단돈 25만 원, 평당 1100원으로 낮추어서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신고 관계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서류는 저도 이번에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모든 회원들이 이 산에 대한 개발자를 장의균이라는 분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그분이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면 입금을 했고 그것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서류 문제가 아니고……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세금 관계에서 각종 평당 1200원에, 그 당시 과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82만 6800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4만 4000……

○**심재철 위원** 어쨌든 그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냈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낸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냈는데 문제는 별장을 지을 수 있는 야산 중간 땅을, 세상에 213평이나 되는 땅을 25만 원에 샀다는 것을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제가 땅값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도 지금 모르겠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스크린쿼터 문제에서 이력서 허위 부분이요.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력서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

실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극장장 공모 신청을 할 때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것도 본인의 불찰이라고 나왔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니까 곧바로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지금 불찰로 서류에 이력 관계를 잘못 기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크린쿼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4년 6월 제작년에 문광부에서는 스크린쿼터 3대 기본원칙을 3개 말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영화는 스크린쿼터 대상이 아니다, 시각영상물 등. 그다음에 만일 이것이 축소 조정이 되게 되면 연동제 방식으로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이 제작년에 발표했던 3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는 완전히 뒤집은 꼴입니다. 최소한 제작년에 기본원칙을 말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는 정도의 사과는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당시에는 문화부도 그러한 입장이었을 거라고 저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상교섭에 대한 환경이 변화되고 정부 전체적인 정책에 변화가 되면서 문화관광부도 그와 보조를 맞춘 고심에 찬 그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그랬고 그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때 장관이 직접 발표한 사항인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바뀌어졌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 정도 표명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 여러 가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고뇌에 찬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정동

채 장관님께서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관도 그 점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 역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저에게 지워진 임무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화를 더욱더 발전시킬 것인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알겠는데 최소한 이런 점은 지난번하고 달라졌으니까 미안하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전주는 전통문화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심재철 위원 경주는 역사문화도시, 부산은 영상문화도시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뭐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개념이 안 잡힙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광주에 대해서는 더 깊이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 개념상으로만 본다면……

○심재철 위원 잘 안 잡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교류……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의지는 알겠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주는 전통, 응. 경주는 역사, 응. 부산은 영상, 응. 이해가 가는데 광주를 아시아, 어? 안 들어옵니다. 개념 설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작업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예비타당성도 없이 왕창 일부터 먼저 벌여놓은 절차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또한 개념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는데 일이 매끄럽게 풀려나가지 못하고 거치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 설정을 다시 하든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주 문제를 얘기하는데 광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

이다, 그다음에 국책사업이다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만 있을 따름이지 광주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념 설정이 잘못되어 있고 의견 수렴이 불충분한 그 두 가지 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 점은 반드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제가 개념 설정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그동안 진행된 광주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모든 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을 점검해서 살펴보신 뒤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 위원 손봉숙입니다.

지난 2004년 4·15총선이 끝난 다음에 ‘미르’지 5월호에 각 4당의 문화정책을 비판한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손봉숙 위원 거기 보면 열린우리당은 문화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문화를 경제활성화의 도구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화산업적인 관점, 즉 문화를 통한 경제력 향상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문화향수권 향상 쪽에만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4당 다 예술의 창조적인 가치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의 몰락 공세 속에서 갈수록 상업화되고 무자비한 국제 문화자본의 영향권 안에서 급속도로 서구화되어 가는 황폐한 문화환경을 건강하게 가꾸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화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4당의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도 똑같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당시에 4당의 전반적인 문화정책을 나름대로……

○손봉숙 위원 그 이후에 장관 내정자가 된 다음에 4당의 문화정책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없습니다.

○손봉숙 위원 열린우리당의 문화정책도 한번 안 살펴보시고 정부 여당에 덜컥 조인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런 것은 아니

고 지금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손봉숙 위원 그래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자리를 내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손봉숙 위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갈 거네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협의를 통해 좀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손봉숙 위원 그 핵심적인 문화정책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어떤 말씀이십니까?

○손봉숙 위원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화정책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마 ‘미르’지에 쓴 것은 10장도 안 되는 짧은 글일 겁니다.

○손봉숙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손봉숙 위원 서면으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엉터리로 답해 주지 말고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답변에서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창작활동 여건 및 지원금 수혜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현재 문광부 내지 산하기관에 있는 여성과 장애인 또 여성 문화예술인, 장애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어떤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직 자세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구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내실 것인지 그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들이 낸 질의서에 답변을 해 오는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원론에도 못 미치는 답변을 해 오셨는데 그것을 본인이 안 하셨으면 좀 읽어라든가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답변이 아

주 미비했습니다.

사행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이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사행산업관리특별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손봉숙 위원 심각하다고는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심각한데 왜 정부는 자꾸 카지노를 다시 더 증설하려고 그러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러한 심각성을 잘 조정하고 그 폐해를 줄이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봉숙 위원 관광객이 늘어나면 카지노 이용객 수가 늘어납니까? 잘 모르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손봉숙 위원 별로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정부는 카지노를 계속 증설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정동채 장관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어떤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느냐 하면, 카지노를 설립하는 허가 요건으로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광역시·도의 호텔에 카지노업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제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이것을 딱 빼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광역시·도에 그리고 관광특구 안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관광숙박업 호텔은 전부 다 카지노를 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어디어디가 혜택을 보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모르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손봉숙 위원 울산하고 광주 두 시만 혜택을 봅니다. 나머지는 현행법에서도 다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누가 카지노업 신청을 한 모양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것 파악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다만 제가 파악

한 바로는 그런 지역에 대한 요건은 완화됐지만 카지노 자체의 설립 요건은 예전과 변함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손봉숙 위원 설립 지역의 허가를 더 넓힌 거지요. 허가 대상 지역을 더 완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더 완화된 거지요.

그러면 사행산업이 심각하다고 금방 대답하셔 놓고 카지노는 계속해서 더 증설하겠다는, 앞뒤가 맞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계속해서 증설한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요. 설립허가 조건은 옛날과 같은데……

○손봉숙 위원 예, 그 정도로 들겠습니다.

민영미디어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방송광고를 끼워 팔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간접광고라든가 중간광고……

○손봉숙 위원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사고 싶은데 이것 끼워서 사 가야 팔겠다, 이것 마음에도 안 드는데 끼워서 팔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공정거래는 아니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소비자 입장에서……

○손봉숙 위원 그러면 미디어랩이라는 게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야 된다는 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러한 광고판매의 자율적 경쟁체제와 그다음에 향유권자의 공익성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봉숙 위원 미디어랩 법이 지금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광부에서 방송광고를 끼워 파는 것이 공정거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신다면 미디어랩 법이 복수 미디어랩이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에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조금씩 다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런데 장관님은 찬성·반대가 어떠한지……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어떤 찬성·반대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제부터는 적절하게 관심을 가지고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예술이 위축되면 문화 생태계는 파괴되고 문화적 자원도 고갈되며 예술의 성장 없이는 인문학의 발전도 문화사업의 성장도 지식정보화산업은 물론 일반 제품업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기초예술연대의 성명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절규에 대한 사회적 반향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장관 내정자께서 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김재윤 위원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러했지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도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책을 얘기한 의원이나 정당도 없고 물어보는 국민도 없고 토론장의 패널도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정치개혁·경제성장·고용·복지·여성 등의 정책 홍수 속에서 문화예술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스크린쿼터 문제나 새 문화예술진흥 방안 등의 시급한 현안은 여전히 정치·경제의 뒷전에 무성의하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장관이 되셨으니까 이러한 예술의 위축을 다시 예술의 활성화로 또 문화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는 그동안에도, 예를 들면 선거에서도 문화가 좀더 뜨거운 쟁점이 되고 앞으로 전 국민들에게 문화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바람이 불어 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에 문화가 중심이 되고 문화가 중요한, 시대의 새로운 문화부흥운동이라고 할까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 데 한몫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기초예술의 붕괴는 창조력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예술을 되살리기 위해서 창조력을, 즉 전통과 창조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도 그러한 철학적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제가 기초예술 현장에서 경험했던 많은 문제점들, 구상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새로운 좋은 제도와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겠습니다.

특히 저는 옛날부터 상상력이라는 게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경제력을 좌우하는 힘이 되는가, 그래서 상상력 산업이라는 말이 21세기에 새롭게 대두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볼까 합니다.

○김재윤 위원 장관 내정자께서는 ‘나비의 꿈’이라는 글에서 꾀질을 벗지 못한 나비는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기존의 우리 정부의 재정구조로 볼 때, 지금 장관께서는 그런 의욕을 갖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가 문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데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톱다운 방식 취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김재윤 위원 우리 국회에서 문화관광부의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 몇 번 지적하지만 잘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김명곤 장관 내정자께서는 국립극장을 책임 운영해 보셨는데 문화관광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문화관광부의 예산편성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예산편성 방식을 혁신할 방법은 있는지, 또 재정경제부라든지 기획예산처를 설득할 논리는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전체적으로 모든 부처가 톱다운 방식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틀 안에서 문화관광부 내의 여러 부서와 사업들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러한 재원들을 통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와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예산

배분의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꿈을 꾸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현실적으로 예산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교육·문화비 지출은 월 3만 5000원 정도인 데 비해서 고소득층의 교육·문화비 지출은 무려 19만 4000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문화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격차는 곧 삶의 질의 격차뿐만 아니라 학력 격차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정 내의 문화환경의 차이가 자녀의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해서 결국 이러한 문화격차는 교육격차로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투자, 공공부분의 지원 그리고 공공부분의 문화인프라의 확충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 내정자로서 비전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맞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소외된 국민들이 그 지역에서 또는 자기 삶의 터전에서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좀 뒤늦었지만 모든 부처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부만의 숙제가 아니라 복지부라든가 여성부라든가 모든 부처들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우리 국가의 양극화 현상을 좀더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부에서도 이 부분 문화나눔사업이라든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제가 지방이양사업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는 2005년 24개의 사업을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 24개 사업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장애인 문화·편의시설 설치 지원, 문화의 집,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의 문화인프라 구축사업과 문화복지사업으로 우리 국민들과 아주 밀접한 사업들이 이양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평가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

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폭 축소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근거법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가 그 업무의 성격, 사회일반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양사무의 환원결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그리고 제대로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장관 내정자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러한 지방이양사업을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 재원 없이 지방에서 하기로 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에서 5년간 시험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다시 환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으로 완전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윤 위원** 구태의연한 껌질을 완전히 벗어가지고 문화관광부의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국민의 하늘을 훨훨 날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세 위원** 내정자께서 쓰신 책을 몇몇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던데 ‘문화의 블루오션을 꿈꾸다’, 저도 오늘 이 자리 때문에 대충 봤습니다.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 부분을 저술하셨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짚고 계시더군요.

인용해 보면 ‘세계의 힘은 부당한 세계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악순환의 고리는 더욱더 커져 가기만 한다.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명제도 경제의 효용성이라는 명제에 가려 더 이상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듯하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현 정부가 전격적으로 협상 개시를 표방한 한미 FTA, 후보자께서 이 저서에 명기하고 있는 부당한 세계화의 흐름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상관없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 또 이번에 그러한 것을 결정한 모든 분들이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영세 위원 다른 부처나 다른 국무위원들은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죠.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러한 협약이 부당한 세계화라든가 문화의 다양성을 완전히 침탈하지 않도록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한미 FTA 찬반을 떠나서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FTA는 우리 사회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IMF 정도가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쓰나미가 돼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부임이 되신다면 재임기간 내내 아마 한미 FTA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여기 상임위에서도 솔한 공론화가, 토론이 전개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미국이 내건 네 가지 선결조건입니다. 오전에 많이 논의됐던 스크린쿼터 축소,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재수입, 의약품가격 인하 철회 그다음에 한국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해라 하는 게 저쪽의 주문이고 우리 정부가 이거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민의 건강과 환경, 문화적인 권리를 수용한 선결조건에서부터 이미 다 상당한 정도로다 침해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까 문광부의 위상, 힘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얘기도 오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재경부장관은 스크린쿼터 축소를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슬그머니 문광부장관은 뒤에서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머리 조아리고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후보자의 여러 이력을 봐서 녹록치 않은

그런 장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한미 FTA 이 과정에서도 사실 국무위원 보면 전부 다 성장주의자들뿐입니다. 모든 부분을 하위개념으로 두고 있는 완전히 친경제관료 일색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관료들 어깨너머로 지켜보시는 자세를 탈피해서 기왕에 맡으시게 된다면 정면 돌파해서 고집스럽게 한번, 뭐가 좀 잘 안 맞더라도 먼 훗날 그래도 역사가, 국민들에게 얘기될 수 있는 그런 편에 서 가지고 문화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잘 알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문화예술정책, 문광부에서 관장할 부분에서 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언론정책인데요. 17대에 들어와서 2005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신문법,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대충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천영세 위원 잘된 점은 어떤 것이고 한계라고 그럴까 문제점은 어떤 것이든가요? 한마디만 하신다면……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글썽, 지금 헌법 소원으로 들어가 있는 한 열 가지 정도의 쟁점사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좀더 헌법의 판결을 봐가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영세 위원 서면답변해 오신 데는 신문시장 정상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개정된 신문법은 미흡합니다. 물론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 특히 거대신문의 불공정경쟁 행태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속에서 이후에 신문정책을 어떻게 펴셔야 될는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경제논리로 다만, 뉴미디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공익성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정책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습시다마는 문화관광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골프장하고 카지노가 일색입니다. 무주·태안·해남·영암 총 면적 중에서 골프장과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율이 42.7%입니다. 무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면적 110만

평 중에 70만 평이 골프장입니다. 카지노대학까지 설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형레저산업보다는 정말 친환경적이고, 농민들을 다 몰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조그맣게 생태·역사 체험 이런 관광을 지역주민들이 살면서 해 갈 수 있는 그런, 대형레저 기업도시로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 자연도 다 훼손되고 환경도 파괴되고 대대로 살아오던 주민들 쫓겨나서 공동체도 무너지고 이런 부분보다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직은 시범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광정책도 과감한 어떤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좀더 전문적으로 자세히 깊이 있게 살펴 봐서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넘어갔는데 한 가지씩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장관 내정자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영역이 어느 영역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물론 제 개인적인 관심은 기초예술과 창작의 활성화, 씨앗을 기르는 것이지만 지금 당면 현안 문제는 우리 영상산업 발전을 어떻게 스크린쿼터 축소의 문제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나라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창작인들의 생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공제회제도라든가 복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 기초예술의 오래된 바람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계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태조사부터 해서 이분들에게 적합한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시고, 이 문제는 제가 예산처장관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두 번째로 장관님께서 국립극장으로 계실 적에 전용극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기초창작인들이 기본적으로 창작조건이 있어도 창작을 한 이후에 창작이 실제로 무대에 올려져야 빛을 발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각 장르별로 전용극장 추진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자유센터를 매입해서 거기에 전용센터를 만들면 좋겠다는 구상을 갖고 계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5~6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국공립극장의 제일 큰 문제가 장르별 전용극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고 그것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자유센터를 매입해서 거기에 전용극장을 짓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사항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방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전용극장의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 위원 저는 국립극장장으로 계실 적에 제안하신 자유센터의 전용극장화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도 국립극장과 시너지효과도 있고 또 자유센터 인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투숙하는 5성급 호텔들이 꼭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문화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서도 좋고 또 무대가 부족한 여러 기초예술인들이 이곳에서 자신이 창작한 작품들을 상설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장관이 되셔서 이 문제의 실천의지가 약해질까 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제가 몇 년간을 고민했던 사안인 만큼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영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화에 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정부의 입장은 스크린쿼터제도의 유의미성은 인정하나 FTA 때문에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에 따르는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만들겠다, 기존에 문광부가 발표한 몇 가지 대책 이외에 장관 내정자님께서 특별히 더 생각하는 종합적인 발전대책에 추가하고 싶은 목록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여러 가지 우리 독립영화, 예술영화 또는 작가주의영화들의 발전과 유통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중영화, 상업영화들의 유통 문제 또 영화 인력들의 복지적인 처우개선 문제 또 해외 배급과 관련된 지원 문제, 저작권 보호 문제 또는 영화와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연극 이런 기초예술들과의 환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현안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위원 그런데 그런 여러 현안사안들이, 지금 과제는 당장 영화인들이 어떤 대책을 내어놓아도 반발하고 있다는 데서 각종 정책들이 아무리 수립되어도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조건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우상호 위원 개인적으로 보실 때 어떠세요, 지금 반발하고 있는 영화인들을 설득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자신 있다고까지는 못하지만 저는 제 진실과 열정을 가지고서 영화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들과 마음을 터놓고 영화계의 앞날을,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직접 영화계에서 활동을 해 보셨습니까라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좋은 대책을 만들어도 영화인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데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친정을 내치지 마시고 정말 옛날에 영화인의 한 사람이었던 마음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대화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부가 영화계가 망하고 한국영화가 완전히 미국영화에 싹쓸이 되는 것을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영화인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오전에 제가 관광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습니까라는 너무 원론적인 대답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충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장, 김재홍 간사와 사회교대)

관광에 있어서는 우리 내부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결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가장 인근에 있

는 지역의 외국인들 관광객 유치가 매우 실효적이라고 본다면 특히 중국…… 일본과는 무비자가 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없습니다라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나라가 아시아의 관광대국이 된다는 것이 아시아 각국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 바로 비자문제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도착하면 비자를 발급하는 착지 비자발급 정책을 펴서 33.7%의 관광객이 증가했고요. 싱가포르의 여행사와 지사에 비자 업무를 위임하고 신청한 후 24시간 내 비자를 발급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124.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비자 발급에 매우 엄격한 물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하고 상의하셔서, 적어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걱정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서 우리 관광레저 복합도시를 만들고 있는 정책과 연결을 시켜서 비자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책을 만들지 않은 한은 아무리 투자해서 관광지를 만들어도 올 외국인 관광객이 없다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외교부와 좀더 협의를 긴밀히 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조금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을 하셔서 가지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홍 다음으로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부탁드립니다.

○이계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출근할 때에도 손수 운전하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6년간…… 예, 그랬습니다.

○이계진 위원 공무시간이 딱 끝나면 공용 차량을 안 타신다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이계진 위원 제가 꽤 조사해 봤는데 평이 좋으시더라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감사합니다.

○이계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번에 의혹들도 많고 그러는데 해명도 또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혹시 의혹 중에 ‘내가 이것만은 인정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모두 그냥 설명하고, 해명하고,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기된 문제 중에 제가 서류상으로 불찰이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중에 어느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까 이력서를 쓰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기재할 못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딸과 부인께서 잠깐 친구집에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이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내요」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아내가요. 죄송합니다.

○이계진 위원 또 그만큼 존경받을 만한 분이시니까……

국립극장의 극장장을 역임하면서 매우 성공적인 운영을 했다는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재단법인 국립극장발전기금 설립을 꾀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내용을 담은 형식에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앞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극장장으로 발전기금이사장을 겸임하면서 기본적인 기금운용규정을 마련했었는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마 기금운용규정은 마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이라든지.

○이계진 위원 아마 마련한 걸로?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좀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진 위원 기금은 열심히 만드셨는데 그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규정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알아보니까 마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기……

○이계진 위원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돼서, 어쨌든 확실히 있습니까?

○국립중앙극장기획조정부장 민병하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우리가 요구하니까 없는 걸로, 알아보니까 없는 것으로 돼 있던데 확실합니까?

○국립중앙극장기획조정부장 민병하 확실히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지금 금방 가져올 수 있습니까?

○국립중앙극장기획조정부장 민병하 예.

○이계진 위원 지금 금방 갖다 주십시오.

발전기금은 개별적인 법 인격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발전기금의 극장 내 사무실은 임대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발전기금 설립 이후에 임대계약이 혹시 있었는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계진 위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이계진 위원 어떻습니까, 실무자들? 임대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조금 알아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작년 국립극장 4개 전속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공연 예산이 15억 8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발전기금에서 전속단체 정기공연에 지원한 금액이 절반이 넘습니다. 9억 1800으로 한 58%쯤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기공연 예산의 50% 이상을 기부 또는 후원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기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이 안정적이지 못한 운영이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사실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발전기금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국립극장의 공연 제작과 관련된 예산이 지나치게 적고 그것을 제가 해마다 예산 당국과 협의했지만 마음대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서는 공연 활성화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은 협찬과 후원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통해서 공연……

○이계진 위원 하여튼 뜻은 좋은데, 결과도 좋았는데 이것이 형식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앞으로 큰 예산을 다루는 문광부의 수장이 된다면. 그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더라도 형식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예술 하시는 분들이 결과 좋으면 좋고 뜻 좋으면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국정감사 때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자가 있는지 그런 것은 좀더 살펴볼까 합니다. 다만 제가 국립극장을 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부분이 그러한 사업에 대한 의욕과 열정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다 보면 그다음에는 그 사업이 완전히 죽어 버리는 결과가……

○이계진 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형식도 중요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래서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리고 남산자유센터 매입하고 국립공연예술센터 이것을 의욕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 자리로 가신다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건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것에 대한 제안은 국립극장장으로서 국립극장을 통해서 문광부에 제안했던 것이고요. 이제 문화관광부장관 입장으로서 과연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면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진 위원 내정자께서 주무장관으로 가시면서 제시던 국립극장 같은 데 특별히 더 지원을 하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상당히 기대를 가질 텐데.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더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속기관이라든가 문화 관련 단체들, 산하단체 모두가 이제는 저의 소관이고 소중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계진 위원 그다음에 방송통신 융합에 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일본은 ‘방송통신’ 하지 않고 ‘통신방송’ 쪽으로

용어를 주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통방’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정보통신 쪽하고 통합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시급한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장관이 되시면 혹시 양보를 해서라도 국가 전체를 위한 통합정책을, 좀 합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 방송통신 융합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이것이 결론을 못 냄으로써 빨리 합의 도출된 나라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거기에 있어서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 이것이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엄청난 새로운 미디어 세계가 열리는 데……

○이계진 위원 경제적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콘텐츠 등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계진 위원 아니요, 방송과 통신 중에 어느 쪽의 개념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문화적 관점에서……

○이계진 위원 딱 부러지게 안 되면 구부러지게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문화적 관점에서 콘텐츠 쪽으로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이것을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후발 국가가 될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를,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문광부와 방송위 간의 업무 영역 조정을 언급하셨는데 ‘문광부와 방송위원회 간의 업무 영역 조정’ 이 말은 그냥 넘어갈 말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문화관광부에서 방송 규제 기관으로 재등장하겠다는 의지로도 충분히 해석되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 문제도 오랫동안 방송위원회 측과 문화관광부 입장이 서로 간에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홍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특히 방송영상진흥과 관련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이계진 위원 방송위원회는 독립 기관으로서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는 데거든요. 그런데 업무 영역 조정을 언급했다는 것은 방송에 대한 간섭이 되고 통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전반적인 방송영상 진흥 정책이라든가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부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전문적으로 전문가들과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홍 이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장관 내정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요, 혹 장관이 되시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어떤 구체적인 사업보다도, 문화라는 게 우리 국민을 신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전체적인 문화에 관한 이미지, 또 문화라는 게 우리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 제가 제일 먼저 소망했던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대답이, 기초예술을 굉장히 공고히 하는 것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러면 너무 자기 분야만……

○이경숙 위원 평소 했던 것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문화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평소의 말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수예술 분야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으로 나타나는데요. 말로 순수예술

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순수예술은 꽃을 피울 수가 없는데요.

2006년 예산을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예진흥 분야가 10% 정도 증가했고 문화 미디어 산업 분야가 38.9%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진흥 분야 중에서도 광주문화중심도시 예산을 제외하면 그냥 현상 유지거든요.

평소에 기초예술은 기초과학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기초예술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책 기초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감이고요, 그러한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예산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금이라든가 기업의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국민들의 기초예술에 대한 관심의 제고라든가 이런 다방면의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이 중요한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술인들의 복지를 지적했습니다. 저도 너무 속도가 안 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임기 내에 예술인들의 복지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느끼실지 모르지만 주택가를 가다 보면 요즘에 새로 나타나는 것이 성인 게임장이 많다는 것 느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게임을 깊이 있게 모르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간판들도 굉장히 현란하게 유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행성 게임물이 늘어나고 성인 게임물이 우리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면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더 심각한 것은, 상품권을 환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긴 한 데, 위조지폐가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위조지폐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을 하신 것을 보니까, 칩 같은 것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를 마련하겠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빨리 시급하게 할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도·감독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제일 처음 말했듯이 21세기 문화의 시대이면서 여성의 시대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이경숙 위원 문화의 시대에만 동의하고 여성의 시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여성들의 능력과 힘이 우리 남성들을 압도해 나가기 시작하는 시대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능력이 압도하고 있는데 실제 문화 부문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숫자, 그중에서도 고위직에 참여하는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국립극장장님 하실 때 여성들이 참여를 어느 정도 했는가 살펴보니, 정규직에는 여성 비율이 낮고 비정규직의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비정규직이라고 할 적에는 대개 기획·홍보·마케팅을 하는 문화기획 전문가들입니다. 현재 그러한 문화의 경영이나 예술 경영 쪽에 굉장히 우수한 여성 인력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다 보면 거의 여성들이 뽑히게 됐고요.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정 공무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율이 좀 적지요.

○이경숙 위원 비정규직이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요, 그 대우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가 70%이고……

정규직이라 하면 안정된 임금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여성들이 20%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립극장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년간 노력을 했지만 정부 조직의 축소화라든가 인력 증원 문제의 벽에 부딪혀서 실현을 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장관 내정자께서 여성의 능력이 많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 그렇다면 이런 기관 단체뿐만이 아니라 문화관광부 내에서도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급에는 지금 여성이 한 명도 없지요. 그리고 산하단체까지 포함해도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도 정부 목표치에 도달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여성들의 능력이 발휘되고, 또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홍 예, 박형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준 위원 아침에도 제가 광대론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광대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김명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광대는 조화와 화합·통합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도 썼는데 어릿광대라는 뜻이 아니라 넓을 광(廣)자 큰 대(大)자로 넓고 큰 어떤 예술 영혼으로 이 세상의 불화와 고통을 껴안는 그런 존재 아니냐 이렇게 썼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그 문제를 포괄적으로 보고 또 균형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참여정부하에서 특히 문화관광부 산하의 기관이 대단히 많다는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 산하기관들 인사한 것을 보면, 지금 제가 죽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열린우리당 홍보기획단장,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부산 금정을 지구당위원장, 무슨 위원장, 위원장, 출마자, 출마자 이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의 주요 직책들이 정치인 출신 측근 인사, 보은 인사가 아니면……

저는 민예총을 굉장히 존중하고 우리 예술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쪽의 인사들이 예술기관들의 장이나 중요한 직책을 다 독점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 새로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인사를 할 때 장관이 제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인물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도덕성 또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이런 것들이 원칙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형준 위원** 능력이나 전문성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술관이나 문화관 전체를 보면서 그것을 균형을 잡아하려고 하는 노력, 이를테면 어떤 중요한 이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글로벌한 이 세계에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일을 해 온 분들도 있는데 이념성은 약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우리 문화산업이나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적자원이나 또는 행정적 자원으로 광범하게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등한시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편중 인사로 다 나타난단 말이지요.

그것이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말 문광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그 자체로 출발부터 어떤 편협된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원칙을 분명하게 초기부터 세워 놓지 않으면 결국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압력에 휘둘려서 똑같이 과거에 진행했던 이런 인사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무엇보다도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서 인사를 하고 문광부 전

체의 여러 부서를 그렇게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어떤 많은 부조화가, 불균형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지금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드는 문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오랫동안 지금 논의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아니, 오랫동안 논의된 거야 뭐 정말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것인데 지금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박형준 위원** 그런데 진행이 안 됐고 그 진행이 안 되는 배경에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사이의 부처 간에 이견이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깊이는 파악을 못 했지만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것이 단순히 방송통신 융합이 아니라 문화산업이나 문화 전반에 걸치는 영향력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컨버전스라고 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는 어쩌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지연됨으로써 그것이 전체 우리 문화의 생산성과 문화의 어떤 한류를 포함해서 그런 어떤 문화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할 때 이것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나서서 정말 이것 조정을 해 내겠다, 아까 광대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시나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 문제도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우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고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준 위원** 그런 같은 맥락인데 지금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특히 선진 방송 또는 언론·미디어 시장을 지향하는 나라치고 이런 어떤 규제조항에 묶여 갖고 언론의 제대로 된 발전이 막혀 있는

나라가 별로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도 또 서면답변에서도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야말로 정말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신문법과 관련해서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찬성과 반대 에 대한 토론도 대단히 오랫동안 뜨겁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둘 중에 어느 쪽인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준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금 문광부가 다뤄야 될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물론 지금 그런 전문 영역에서 일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야말로 정말 빨리 원칙을 세우고 소신을 갖고 일을 집행하지 않으면, 문광부의 지금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정책 가운데 이런 주요한 전략 과제들이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관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지금 위성 DMB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상파 방송들이 지금 위성 DMB를 못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터났지만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정치적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 문제도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전문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홍 예,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원호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문화산업 모태펀드 운영과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윤원호 위원 그런데 문화산업 모태펀드 운영에 대해서는 짧은 답을 들었는데요, 제가 참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정책국에서 모태펀드 운영은 철저히 시장논리를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펀드 투자는 돈 벌자고 하는 것이지만 이런 논리는 문화관광부로서는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장관 내정자의 특별한 어떤 정책에 대한 정책 집행 목표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모태펀드라는 것은 민간투자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문화산업 분야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장논리라는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조금 더 배경을……

○윤원호 위원 문화산업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데 그 모태펀드도……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펀드라는 것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도 이득이 가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방안은 뭐가 있는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또 더 큰 목적은,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렇습니다.

○윤원호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윤원호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답변을 전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말 기준 문예진흥기금 총 적립액이 5272억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354억을 집행했고 이것이 점점 줄어가서 2014년 되면 바닥이 납니다.

순수예술가들을 지원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기초를 다지는 데 일조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을 문광부에서 모른 채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방안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이것도 지금 문광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

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금 자체를 국고로 확보하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벽에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고 문예진흥을 통해서 기초예술을 활성화시키는 업무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재원 확보가 정말 시급한 과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이게 민간 위원회로 전환이 됐지만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래서 그 기금 재원을 위해서 복권기금이라든가 기부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다각도의 재원을, 다방면의 재원을 한번 마련하는 것도 함께 연구를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다음 관광수지 적자가, 지금 2004년도 관광수지 적자가 38억 불입니다. 그런데 계속 2005년도에 또 더 늘어났거든요. 2005년도에는 63억 불 적자가 났습니다. 이런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글썽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은 적고 나가는 관광객은 또 많고 이래서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로 아까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와 같은 시책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요. 우리 관광명품을 만드는 문제, 한류와 연결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다각도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원호 위원** 그런데 문화부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이요. 대부분 어떤 때 투자가 되느냐 하면 특급 호텔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윤원호 위원** 특급 호텔을 중심으로 한 숙박 시설 확충에 문화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투자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전임 장관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느냐 하면 2008년도에 외래 관광객 10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관광시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특급 호텔 건설하는 데 계속 관광진흥기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된 관광진흥기금이 또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쓰여지는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특급 호텔 건설에만 투자를 할 것인지, 관광진흥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깊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더 더 파악을 해서 바른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리고 전임 장관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에 관광객 1000만 명 계획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어떠한 배경과 근거로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고요.

무리하게 숫자를 위한 또는 어떤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운 그러한 비전이 되지 않도록, 저로서는 또 전임 장관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가장 부족한 게 관광 호텔 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외국 관광객 유치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관광 호텔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평소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관광 호텔이나와 가지고, 아주 편안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외국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원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숙박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숙박 시설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 시간이 너무 부족한테 제가 오전에 요덱스토리 정성산 감독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왜 그 작품을 보라고 권했느냐 하면 탈북한 지가 95년이니까 지금 11년이 됩니다.

그러면 11년 동안에 우리나라 남북관계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되었고 또 북한 인권문제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서른 일곱의 이 감독이 보는, 20대 때 북한에서 봤던 그런 기억과 지금 남북관계와 북한의 인권문제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내정자께서 시간을 내셔서 이 감독하고 면담을 한번 하시든지, 이 작품을 꼭 보시고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좀 다른 점도 한번 의견 교환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제가 작품을 아직 보지 못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더 보고요.

○윤원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재홍 다음 순서는 정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정병국 위원 정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장관 내정자께서는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전체 국가재정의?

○정병국 위원 예.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 1% 조금, 1.3%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장관께서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문화입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몇 %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 소망이야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위원 어느 정도?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한 2%까지 간다면……

○정병국 위원 그렇게 2%까지 장관 재임 중에 끌어올리실 의향은 없으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지만 그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2004년도에 문화부 예산이 전체의 1.21%였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0.97%로 떨어지고, 2006년도에는 0.85%로 떨어졌다는 것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알기로는 전체 예산에서 지금 1.0……

○정병국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러한 비판과 이러한 얘기, 목소리를 못 들으셨습니까? 문화현장에 계셨으니까 알 수 있었을 텐데.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니, 예산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통계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렇습니다. 통계수치가 어떠냐 하면 전체적으로 1% 조금 넘는 것이,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1% 넘는 것이 맞는데 순수하게 문화, 예술, 그러니까 문예진흥사업이나 문화사업, 관광사업, 문화재청 예산이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만드셔야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하셔야 되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정병국 위원 저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에는 반대하지 않고 당연히 만들어서 진짜 동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가 한국에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문광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얼마 되지 않는, 약 1% 남짓하면 전체 액수가 얼마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액수로?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액수로 지금 2조……

○정병국 위원 2조 안 되지요. 약 1조 3000억에서 5000억, 그 분야가.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1조 3000억.

○정병국 위원 1조 3000억이에요. 1조 3000억인데 이 중에서 광주문화중심도시의 SOC사업에 차그마치 21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광주문화중심도시에는 기존에 있는 이러한 전체 예산에서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회계를 해야지요. 동의하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문화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백방으로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백방으로 기울인 것이 아니고 안 했어요. 이것을 초기서부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런 어떠한 산업적인, 전시적인,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SOC가 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전시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내정자가 활동을 하셨던 기초문화예술의 예술인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더 목을 졸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화정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

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광주 예산이 문화부의 전체 실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그동안에도 문화부가 백방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의 예산들이 지금 좀더 삭감되거나 현행 유지가 되거나 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현실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예산 문제일 텐데요.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나와 계시지만 내정자 개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쿼터 축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은 이미 내정자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병국 위원 내정자로서가 아니라 개인 김명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개인 소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예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러저러한 벽도 많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 이것을 아마……

쉬고 싶다, 그리고 순수하게 내가 하던 일을 하고 싶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 자리를 수락하게 된 것은……

이러한 현장에서 벽을 느꼈던 부분들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셨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해서 소신이 그러한 것 중의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을 지금 장관으로서 정부의 여러 부처들과 함께 정책적으로 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정병국 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신이 바뀌면 안 되지요.

아까 아침에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정부의 한 각료가 된 입장에서 변경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셔서 가지고 의지가 읽히집니까?

최소한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스크린쿼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뛰었던 동료들을 보는 견지에서도 저는 이러한 답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함께 뛰었던, 함께 투쟁을 했던 동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장관 되더니만 바뀐다, 먼저 이창동 장관도 그래 가지고 많은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그런 의지와 소신은 굽히지 않아야 이러한……

어쨌든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소신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싸워 가지고 이것의 필요성을, 영화계와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는 앞으로 한국영화가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해서 더 위축되거나 망하지 않도록 정말 소신껏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서 몸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장관 되시기 이전에도 그러한 뜻을…… 스크린쿼터 제도가 아니어도 다른 제도에 의해서 영화가 위축되지 않고 발전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나가셔야지 거기에서는 이렇게 구구절절이 문서로까지도 남겨 놓으시고 강의를 하신 분이 이렇게 또 말을 바꾸시면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것은 제 개인의 어떤 소신 문제라기보다는……

○정병국 위원 개인의 소신이 아니에요?

개인의 소신이 아니면 스크린쿼터연대에서 떠드는 얘기를 여기에 정리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니, 지금 현재 제가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결정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일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 자, 후보자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각 부처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낮고 위상이 낮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경제부처 우선적으로 흘러가고 있

고 거기에 우선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부 예산, 특히 문화관광부 예산 중에서도 순수 문화예술 차원의 예산은 늘 제자리거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김명곤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하셔야 될, 또 문화계가 바라고 있는 방향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시면서 느꼈던 문화정책의 한계라든가 예산의 한계라든가 이러한 측면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한 가지 예만 들더라도, 스크린쿼터 제도와 같이 단순히 이것이 영화산업을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화주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인식을 하셨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소신을 갖지 않고서는, 또 내가 국무위원이 된다면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무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꼭 김명곤 후보자가 국무위원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홍 정병국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정병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장관을 해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 현장에 있었던, 예술 현장에 있었던 김명곤 후보자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큼니다. 큰 만큼 이러한 각오와 신념, 소신을 껴지마시고 최선의……

단 하루를 하다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지고 들어가서 싸우셔야지요. 16명, 20명의 국무위원이 있으면 그 중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싸워서 문화예술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장관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홍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저는 지금 막 서울시체육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번 이명박 시장의 소위 황제 테니스 파동의 핵심 인물이 두 분 계신데요. 그 중의 한 분이 서울시체육회 부회장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번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저희들은 드린다는 차원에서 비려갔는데 결국에는 뵙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상근 부회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자리를 비우고 계셨습니다. 어제도 사무실에 안나왔다고 합니다.

그 연봉 1억 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입니다. 근무가 해이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문제는…… 서울시 체육을 총괄하는 회장은 명목상 서울시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근 부회장이 서울시 체육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체육을 총괄하는 상근 부회장이 체육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인 출신, 이래 가지고 서울시체육회가 제대로 되겠는가, 서울시 체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물론 그 밑의 실무 총괄을 맡고 있는 사무처장 역시 구의원 출신의 정치인 출신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서울시체육회를 방문했지만 상근 부회장과 사무처장의 배경을 보고서 이게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개 시·도도 역시 대부분 체육회,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회의 주요 임원들 역시 정치인 출신 내지는 정치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우리나라 체육이 건전하고 순수하게 발전하겠는가?

정치인이 체육단체를 맡는 것은 순수한 체육 발전에 뜻을 두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단체를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이런 구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각 시·도의 체육회를 관장할 책임을 지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체육회의 주요 간부들, 적어도 급여를 받는 주요 간부들에 있어 가지고는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체육계 종사자에 한해서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전국을 통틀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회의 주요 임원, 특히 급여를 받는 임원들에 정치인 출신들 내지 정치하려고 하는 지망생 출신들이 얼마큼 되는지, 그러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나라 체육이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육에 때가 묻지 않아야 된다, 체육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열정과…… 체육계에 관련된 인사들이 체육계 관련 임무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좀 살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안민석 위원 WBC, 이번 세계 야구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의 병역면제 결정됐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확하게 파악

은 안 되었지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혹시 여론수렴 과정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외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혜택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여기에서 형평성의 문제 가지고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야구, 축구만 했을 경우에 다른 종목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을 면제시켰을 경우에 한류스타들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의 우수한 인재들과는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것인가,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축구와 비교했을 때 여론수렴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축구선수들을 군 면제시켜 주었을 때는 대회가 열리기 전에 16강에 진입할 경우 군 면제를 시켜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토론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생략되었고 선수들이 8강, 4강 올라가는 시합이 진행되는 그 시점에 선수들을 면제시키겠다는 당정 간의 협의회가 있었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런 제안을 국방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상에 미비한 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면제도……

그러면 어쨌거나 이번 WBC 선수들의 병역면제 혜택이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여론의 추이를 봐서 반복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볼 적에는 결정이 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WBC대회의 감독을 맡았던 김인식 감독이 빼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야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에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것은 야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학생 선수들의 수업결손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대강 파악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자세히 파악은 못 했지만 거의 수업과 관련 없이 학교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작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자세히 봤는데요. 북한도 학생들을 수업

을 시키고 2시, 3시에 수업이 다 끝나고 운동선수들을 운동을 시키더라고요. 아마 우리처럼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수업을 아예 전폐시키고 운동만 시키는 이런 경우가 세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장관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꼭 올바르게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실태조사도 해보고 우리 운동선수들이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우리나라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국제기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셨습니까? KOC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KOC, 대한올림픽위원회입니다.

○**안민석 위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입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1명입니다. 1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스포츠 외교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올림픽위원회, KOC를 법인화시켜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스포츠 외교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이 몇 %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지극히 낮은 것으로……

○**안민석 위원**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40%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국민건강영향 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20%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40%라고 주장하고 보건복지부 조사는 20%라고 주장해서 20%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부가 조사하는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는 만 15세 이상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19세까지는 학교에서 좋은 삶든 간에 학생들이 일주일에 2번씩 운동을 하기 때문에 100%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의 생활체육 참여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미 선진국 수준의

40%가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성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아닙니다, 그동안 3년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요. 2003년에 이어서 올해가 조사를 하는 해입니다. 올해는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조사 방법이라든가 조사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재홍 다음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충환 위원 아침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무주에 집을 지으셨던 것 말이지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땅값을 대략 3000만 원씩 냈다고 되어 있고 집을 짓는 값은 1억씩 따로 냈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정자께서는 땅값을 25만원 낸 것으로 세무서에 등록을 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매매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값을 땅 사는 돈만 낸 것이 아니고요, 초기 개발을 위해서 회원들이 공동으로 정한 가격을 저는 나눠 가지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만 사는 돈이 아니라 길도 내고 하수구도 뚫고 전기도 매설하는 것을 회원들이 공동으로 냈습니다.

○김충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국세청에 등록된 것은 세무……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때 낸 돈이 아마 1750만 원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요.

○김충환 위원 글썄 말이에요. 1700만 원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무서에 등록한 것은 25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세무신고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거기에서 제가 낸 돈과 나중에 집을 지을 때 낸 돈이 38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세무 관계라든가 모든 것들은 대행, 위임받은 건설자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세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다면 무주군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혼자만 그런 방식으로 계약

을 한 게 아니고 모든 회원들이 같이 계약을 했고요. 지금 거기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교수분들이라든가 예술가분들, 그분들의 입장도 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충환 위원 그런데 제가 같이 참여하신 분들 몇 분을 만나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땅값을 3000만 원을 냈고 집 짓는 값을 1억 2000만 원씩 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대개 비슷하게 했다고……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아마 집을 짓는 데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지을까에 따라서 다 가격이 틀릴 것이라고 봅니다.

○김충환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는 그냥 흠뻑에다가 20평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 달라고 해서, 돈이 없으니까 제일 싸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김충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문서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리고 제가 초기에 개발비를 낸 사람하고 그 뒤에 들어온 사람하고는 낸 비율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김충환 위원 예, 있을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왜 여쭙 보느냐 하면 세금 낸 액수가 25만 원에 200평을 매입한 것으로, 이렇게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세금을 적게 냈다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 다시 살펴 보니까 세금 내역도 다 있더라고요.

○김충환 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것은 사실 제가 일일이 다 낸 것이 아니고 개발자께서 통합적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다음에 국립극장장 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극단의 경우 공연이 60회가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114회로 굉장히 늘었다가 2003년에는 58회로 또 급감했고 그 이후 2004년도에는 공사, 2005년도에는 대개 낮은 수준으로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2003년도에 해오름극장이라고 대극장을 1년간 리모델링 공사로 문을 닫았고요, 2004년도에는 달오름극장이라고 450석짜리 극장을 반년 간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김재홍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환 위원** 공연장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군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공연장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환 위원** 또 관현악단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8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30회의 공연을 해서 공연당 약 400만 원이 들었는데 2004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을 들어서 27회 공연을 해 가지고 공연당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현악단이 공연을 하는데 3년 전에 400만 원으로 하던 것을 이렇게 3000만 원으로 비용이 많이 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통계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어떤 근거로 그렇게 나왔는지는……

○**김충환 위원** 98년도 예산이 1억 3000만 원인데 공연은 30회로 이렇게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관현악단 운영 예산이 6억 원인데 공연 횟수가 27회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관현악단이 그 전에 공연을 할 때는 대개 연주만을 했기 때문에 제작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 가지고서는 관현악단이 단순한 정기연주만 할 것이 아니고 연극적인 요소도 결합해서 다양한 관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작들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극과도 연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작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김충환 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2005년에는 공연비가 9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회당 900만 원이요?

○**김충환 위원** 이것이 너무 들쭉날쭉 이렇게 되는 것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2005년도라고 하면 작년인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외무부에서 1억 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외 공연을 가기도 하고 대외적인 공연 초청 쪽으로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다니니까……

○**김충환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내정자께서 국립극장장이 되어 가지고 초기 2년 동안에는 아주 활발한 성

과가 난 것 같은데 3년 차부터는 또 공사도 하다 보니까 실력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서……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통계 수치상으로는 공연 횟수라든가 관객 점유율, 동원, 모든 것들이 2년 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리모델링 공사에 굉장히 전력질주를 했습니다.

○**김충환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 한류의 확산, 또 외국인의 고급 문화의 국내 유입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제 21세기에 들어서서 한국 문화 예술이, 또는 체육이든 관광을 국내에서만 자급자족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국제 교류도 활성화해야 되고 특히 한류를 통해서 먼저 나가고 있는 한국 문화의 상승 기운을 전통 문화, 기초 예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 문화 산업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 외국인의 고급 문화 유입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제는 뮤지컬이라든가 외국인의 세계적인 유명 연주단체, 예술 단체들이 수시로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공연예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 창작예술들이 소외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국인의 세계적인 단체들과 우리의 공연 단체들이 경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 김재홍입니다.

정부가 언론 개혁은 할 수 없지만 언론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7대 국회 초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개혁 입법된 것이 바로 우리 문광위에서 이루어진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

법입니다.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신문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열 가지 안팎의 쟁점이 있다고 김명곤 장관 내정자도 인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헌법소원은 자유입니다. 국민 누구나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 가지든 백 가지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하냐, 근거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공개 변론도 하고 헌법재판소가 따질 것입니다.

언론 개혁에도 이르지 못하고 언론 환경의 개선, 언론 환경이라는 것은 시장과 유통망 같은 것이지요. 배달망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도 충분히 개선해 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소수 독과점자의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다수의 언론 자유와 언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언론 개혁 입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규제가 신문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유통망, 신문배달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다수 국민의 신문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정부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언론매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라고 오해하는 것은 정말 오해인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바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김명곤 장관 내정자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신문유통망의 운영을 둘러싸고 매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부족입니다. 문광부 전체의 예산도 매우 열악합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신문매체에 대한 접근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신문유통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할 용의가 있으며 구상이 있는지 간단히 좀 밝혀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신문유통망은 이제 막 시작을 한 어떤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는 거기에서 꿈꾸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기에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매우 부족하죠?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김재홍 위원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지금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거대 신문사들은 참여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이것이야말

로 작지만 다양한 이념과 논조를 반영하는 그런 매체들의 환경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책적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알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김명곤 내정자는 남북 문화예술 교류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직접적인 참여는 아니지만 금강산에서 해맞이 의식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러한 행사에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북한 인사들과의 직접 교류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재홍 위원 전 장관은 남북 문화예술 교류 협력에 대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의존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지금의 남북관계 발전으로 봐서 옳지 않다고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 문화예술 교류는 이제는 전문적으로 문광부에서 정책 입안하고 예산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문광부의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김재홍 위원 물론 예산은 어려운 줄 압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앞으로 장기적으로 비전을 볼 적에는 남북 문화예술 교류는 앞으로 문광부에서 직접 관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지금 금강산 관광객이 몇 명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작년 말로 100만 명을 넘어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정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금강산 관광이나 백두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은 남북관광 산업 연계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검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는 통일부나 특정 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나라의 관광사업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관광뿐만 아니라 체육 교류 또는 문화예술 교류, 또 언어의 문제, 굉장히 폭넓은 남북 간의 교류 문제가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남북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남북 문화예술 교류, 남북 체육 교류 이런 것을 전부 다 통일부에 맡겨 놓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그 이상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문광부에서 앞으로 할 일이 많고, 특히 남북 문화예술 교류나 체육 교류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를 추진하고 관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래야 아마 문광부의 전체 예산도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 확실하게 소신을 갖고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한류문화와 관련해서요,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북미대륙 남미대륙에도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지요? 일반적인 한류 확산은 동남아 국가들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강 외교가 아니라 중진국을 넘어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로서 동남아 여러 나라를 거느리는 외교, 동남아 경제·문화를 선도해 가는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아시아문화연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우리 한류의 확산 배경, 확산 이유를 제 나름대로 보니까 아시아적 가치관, 아시아적 가치를 매개로 해서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아시아문화산업의 중심력, 한류를 매개로 해서 아시아 문화인들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한류가 일방적인 한국 문화의 보급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대한 전파 이런 쪽으로만 보여지는 것은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교류 차원의 한류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고요. 특히 아시아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 또는 문화적 관계는 아직도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시아문화연대와 같은 좀더 적

극적인 교류 사업이라든지 교류 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파악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거기에 많은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숙 위원** 좀전에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다녀왔다 그러시면서 정치인이 아닌 체육인들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장에는 김정길 씨, KBO에는 신상우 씨, 배구협회 회장에는 장영달 씨, 농구협회에는 이종걸 씨, 핸드볼협회에는 김한길 씨, 한국배구연맹 회장에는 김혁규 씨 등 이렇게 정치인들이 체육회의 중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요덕 스토리’에 관해서 이계진 위원이나 윤원호 위원께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연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김명곤 내정자께서는 국립극장장이셨습니다. 공연스케줄이 1년 동안 딱 차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거의 1년 전에 스케줄을 마련합니다.

○**박찬숙 위원** ‘요덕 스토리’를 보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관해서 진심 어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면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공연을 초청하고 대관을 결정하는 것은 국립극장의 고유영역이고, 오히려 그것을 장관 입장에서 이것을 초청해라 이런 공연을 해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숙 위원** 지시가 아니고 의견을 개진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계진 위원의 조금 전 질의에 관해서 오전 중 답변에서 서류상 불찰, 그리고 부인과 딸의 주소

이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소 이전은 위장전입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왜냐하면 그때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온 가족이 살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차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부인하고 딸만 주소 이전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허위 신고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서류상 불찰이라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 아니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용어상으로 될지는 저도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일단 부인과 딸이 같이 살고 계시다가 다른 집으로 주소 이전이 됐고 그 임대를 놓은 주인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그 집에 들어온 계약서는 제가 오전에 보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장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옮겼다가 다섯 달 정도 만에 다시 저희 집으로 주소이전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학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다섯 달 중 한 달은 따님과 부인께서 미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미국에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친구의 초청으로 갔다 온 것입니다.

○박찬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2005년 4월 15일, 그러니까 8·31 부동산대책 이전에 대치동 아파트를 구입하셨다고 그랬더니 전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대치동 어느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찬숙 위원 현대아파트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러면 제가 현대아파트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는 그것이 대치동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대치동이라고 이해한 것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은마아파트를

얘기한 것입니다.

○박찬숙 위원 저는 현대아파트 매입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전세가 아니고 분명히 매입을 하신 것입니다.

봉사활동의 내신에 관해서 그것은 교수가 알고 있다 이렇게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내신성적에 포함되고 대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봉사할 기관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내정자의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인 K모 교수는 국립극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따님께서도 국립극장에 가서 말하자면 한 달 동안 봉사랄까 연구보조를 했다, 이것이 국립극장에서 보낸 서류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봉사 활동 확인서’입니다. 전화로 다시 확인하니깐 이런 것이 없다고 계속 말하니깐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니깐 한 달이 아니고 한 1주일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그것을 처음 보는데 확인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찬숙 위원 봉사 활동 확인서, 36시간,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30일간.

그런데 전화확인 결과 한 6, 7일 정도 왔다 갔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은 국립극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사업을 진행했던 교수님께서……

○박찬숙 위원 여기에서는 국립극장의 권호웅 씨가—확인자 직책은 대외협력팀장—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극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극장에서 설문지를 돌리고 그것을 회수하고……

○박찬숙 위원 봉사활동을 국립극장장으로 계시던 바로 거기에서 따님이 하셨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시간은 바로 용역연구를 진행한 교수님이 결정한 것입니다.

○박찬숙 위원 그 용역연구를 진행한 K모 교수는 그 당시 내정자의 석사학위 지도교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국립극장에서 홍

보학회로 용역을 의뢰했고요.

○박찬숙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홍보학회에서 그 교수에게 위임해서 연구가 진행된 것입니다.

○박찬숙 위원 일단 봉사활동 시간이 많이 부풀려졌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교수님의 설명으로는 전혀 그렇게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딸에게 봉사활동……

○박찬숙 위원 서편제로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김명곤 배우께서 그것을 지시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전혀 저는……
예, 그렇습니다.

○박찬숙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동 6대 장관에 대해서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언론을 통제하는 언론홍보지침을 첫 작품으로 내놓았습니다. 기사실을 브리핑실, 기사송고실로 개편해서 취재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문취재가 금지되었고 취재실 명제라든가 취재 응대 후 상부 보고제라든가 이런 것이 도입되어서 현재 어떠냐 하면, 제가 확인하니까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정례브리핑에 문광부 등록기자 200여 명 중 한 10명의 기자만 평균적으로 참석하고 있어서 오히려 문화관광부가 문화예술정책의 언론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유명무실한 브리핑제를 개편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것은 전임 장관께서 시행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숙 위원 전임 장관이 이것을 시도한 것은 문화관광정책을 좀더 잘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잘못되고 있으면 고치셔야지요. 스크린쿼터에 대한 소신도 지금 장관직 때문에 바꾸셨는데 이런 정도를 못 고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이것 파악을 해서 좀더 문화관광 업무가,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시간이 되어서…… 조금만 더 쓰도록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신문하고 방송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송은 국민의 소유인 공공전파입니다. 신문은 개인이 선택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기업의 영역입니다. 이 구별을 분명히 하시면서 새로운 신문법에서 공정거래법의 독과점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책 쓰신 것을 죽 보니까 전통에 관해서, 블루오션에 관해서 전통에 관한 가치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통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전통 속에 전통공예에 관한 관심도 같이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전통과 관련된 것이라면 저는 뭐든지 다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 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전통공예인들에 관한 정책을 앞으로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통 융합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서면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애매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확실한 입장정리를 해 가지고 방·통 융합의 기술은 개발해 놓고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중요한 산업으로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 지난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16강에 들어가니까 정부에서는 병역면제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던 다른 국가대표선수들이 집단적으로 훈련을 거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대충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 당시에 왜 국가대표선수들이 훈련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마도 형평성

의 문제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종복 위원 예, 잘 아시네요.

이번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했던 우리 야구대표팀이 4강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또 정부에서 이 선수들에게도 병역특혜를 주자고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 법규에 의하면 병역면제 특혜를 주는 경우는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을 따면 그렇게 해 주고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따면 병역면제 특혜를 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비인기 종목에 관한 것인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 주는 혜택은 있지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상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병역면제와 관련해서 형평성이 없고 국제대회 입상자들별로 현격한 불균형이 있다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많은데 정부의 이번 조치를 보면서 또다시 그 사람들의 2002년도 집단 훈련거부 사태를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대표선수들이 병역면제만을 위해서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에만 열중하고 다른 세계선수권대회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정말 진정으로 한국 스포츠계가 발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태릉선수촌에서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듣고 열심히 선수들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데 장관내정자께서는 만약 장관이 된다면 세계선수권대회, 특히 비인기 종목 분야의 우승자들에게도 병역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을는지요? 왜냐하면 장관이 되신다면 체육 부문의 주무장관이 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글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지금 영화계에서 비율 논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비율 논쟁의 초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6 대 4, 5 대 5……

○정종복 위원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극장주들과 영화제작자들 간의 비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종복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 외국 영화에 대해서는 6 대 4의 비율로 이익이 분배가 되고 국산 한국영화에 대해서는 5 대 5로 되고 있는 것을 외국 영화 기준으로 바꾸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종복 위원 대충 그런 취지인데 정동채 전 장관께서도 쿼터 축소 보완대책으로 비율조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동채 장관도 한국영화도 외화의 비율처럼 제작배급사 측에 6을 주고 극장 측에 4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임 장관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확하게 고치겠다고 했는지,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제 생각으로도 쿼터 축소 이후에 한국영화를 보호·육성하는 실질적인 보호대책으로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국영화에 대해서 비율을 현재의 5 대 5에서 6 대 4, 말하자면 제작사에 6을 주고 극장에 4를 주는 식으로 조정했을 경우 영화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놓은 자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본 적이 없습니다.

○정종복 위원 없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정종복 위원 제가 보더라도 지금 비율 관련 실태조사라든가 상황파악에 대해서는 간단한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종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고 또 외국의 사례도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총액분배방식이라든가 스케일 분배방식 등 세 가지 정도의 비율 분배방식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택하라고 권유하고 있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정비율 방식은 없다고 그러합니다.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 이후에 영화인들이 현재도 시위를 계속하고 또 분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미봉책으로 40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화제작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선 실제로 도움될 만한 후속 대책을 빨리 세워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관 내정자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관광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극장업자 또는 제작자들 간의 상충되는 논리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좀더 깊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진 위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심재철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이계진 위원님 하십시오.

○심재철 위원 무주 땅값에 대한 질의의 핵심은 세금이니, 투기니 그것이 아니고 213평의 땅이 단돈 25만 원, 대지로 지목변경을 추진 중인 별장지가 단돈 25만 원, 그것도 213평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글썽,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인 것이 그 땅은 저 혼자 구입한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심재철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는 계속해서 나

혼자가 아니고 공동으로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해 줘서 나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200평이 넘는 별장지 땅을 25만 원에 샀다는 것은 웬지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전혀 별장지 땅이 아니었고 동네 야산이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쨌든 대지로 지목변경을 추진 중인 땅인데, 야산이에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야산인데 야산 중간이라고 하더라도 200평이 넘는 땅을 단돈 25만 원에 구입했다는 것은 웬지 좀 이상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도 그 서류를 이번에 보고서 동네 옛날에 개발할 때 관여, 좀 알고 있던 동네 주민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때 그 땅들은 전부 갈대밭에다가 그 정도 값이었고……

○심재철 위원 아무리 갈대밭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니 주민 말씀이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별장을 지을 정도의 야산 땅이 한 평에 1100원, 200평 넘는 땅을 단돈 25만 원에 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디 산꼭대기도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저 혼자만 200평을 산 것이 아니고 2만 평의 땅을……

○심재철 위원 알아요. 여럿이 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야, 제주도 좋다. 200평이 넘는 땅을, 어떻게 별장 지을 수 있는 야산을 단돈 25만 원에 샀나,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의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거래가격을 줄였겠구나’라는 추측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무튼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서류 중에 회비 납부규약이 있는데요. 98년도에 땅값 플러스 개발비 해서 1750만 원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본인도 그런 돈을 냈을 텐데……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당시에 땅값

이 25만 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후보자께서 지금 답변을 조금 중단하시고요.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고 계시니까 이 질의 사항은 여기서 마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마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신문법에서 1개사가 30% 이상, 3개사가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규제를 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그래 그럴 수 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쨌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지금 그 조항도 아마 위헌소송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지금 저도 깊이 연구가 안 되었고요. 결정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좀……

○**심재철 위원** 답변을 회피하시는군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데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아 저것 잘못되었다, 내가 보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래서 ‘아, 내가 보니까 저것 문제가 있다, 저것 고쳐야 된다’라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지금…… 그 조항이 지금 언론중재법의 가장 대표적인 위헌조항으로 지금 또 이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위헌조항으로 걸려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답변은 회피하시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판결을 기다려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점에서 역시 장관후보님께서 당당하지 못하고 지식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빼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런 점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것은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 당당하지 못한 태도들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력서 문제랄지 땅 문제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안타까운데요.

자, 땅값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나는 25만 원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는 그리고 대한민

국의 모든 국민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전혀 인정을 안 하시고 버티고 있으니까, 막무가내로 버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는 따질 수가 없네요.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 국회의 가장 커다란 맹점이기도 한 것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재홍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재홍 위원** 추가질의도 필요한 경우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동일 질문이 계속됨으로써 시간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당 쪽에서는 추가질의 희망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면 일방적으로 야당 쪽에서만 하게 되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추가질의를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추가질의는 2분 정도 하십시오. 그러면 되겠지요?

이계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계진 위원**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위기를 넘기는 것만으로는 사실 곤란하거든요. 앞으로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립극장 발전기금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썼느냐 그랬더니 함께 오신 배석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배석자가 자료 전달)

이것을 또 읽어 보고 연구해야 돼요. 진작 갖다 주지 왜 아까는 엉뚱한 것을 갖다 줘니까?

여태 이것을 읽어 보니까 시간을 많이 썼는데, 헛것 가지고 왔어요. 갖고 와서 저를 혼계했어요. ‘국립극장 발전기금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의 명칭이지 기금관리법상의 기금이 아니다’하고 혼계를 하고 갔어요.

이런 게 없으면 없다고 그러지, 못 찾으니까 못 찾았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갖다 주겠다고 그래야지, 이것은 사무부서 운영규정과 국립극장 발전기금정관이라는 것은 시스템 운영에 대한 규칙이지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넘어갑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실무자 일어나 보세요.

이제 막 하나까 이것을 갖다 주면 내가 귀신입니까? 이 30페이지를 지금 읽고 파악합니까?

가져온 사람, 대답해 보세요.

놀리는 것입니까?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국립중앙극장기획조정부장 민병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 발전기금은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서 모든 것이 이사회에 의해서……

○이계진 위원 기금을 어떻게 쓴다는 운영지침을 달라고 했지 누가 시스템 운영……

○국립중앙극장기획조정부장 민병하 지금 방금드린 것이 거기에 따른 사무규정, 발전기금, 회계처리규정,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갖다 드린 것입니다.

○이계진 위원 아까 시간이 있을 때는 엉뚱한 것을 갖다 놓고 그냥 넘어가고 왜 이제 가져옵니까?

○국립중앙극장기획조정부장 민병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규정이라는 정관에 따라서 파생되는 규정이지요.

○이계진 위원 진짜 계속할까요? 지금 나한테 이것 가져온 게 잘됐다는 얘기입니까?

○국립중앙극장기획조정부장 민병하 지금 드린 것은 정관에 의해서 파생되는 기금입니다.

○이계진 위원 달라는 것 안 주고 엉뚱한 것 주고서 대충 넘어가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국립중앙극장기획조정부장 민병하 그렇지 않습니다.

○이계진 위원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뭘 잘못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운영규정 없이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가 업무할 때는 정확하게 하겠다, 이것을 듣기 위해서 내가 물었는데 이런 것을 갖다 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국립중앙극장기획조정부장 민병하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관에 의해서 지침이 나오고 거기서 규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규정은 정관에서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계진 위원 그래서 계속 혼계하는 것입니까?

○국립중앙극장기획조정부장 민병하 죄송합니다.

○이계진 위원 내 얘기는 갖다 달라는 것을 갖다 줘야지 엉뚱한 것을 갖다 놓고 슬쩍 넘어가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국립중앙극장기획조정부장 민병하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회계처리지침인지 아니면……

○이계진 위원 자신감 있게 갖다 놓고 메모까지 해서 나를 혼계한 것 아닙니까?

○국립중앙극장기획조정부장 민병하 죄송합니다.

○이계진 위원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로 같이 업무할 사람들, 똑같이 이따위로 나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하려고 한 것이예요. 이것은 그게 아니다…… 그런데 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막 질문하는데 이것을 갖다 놓으면 파악해서 또다시 질문합니까?

그러면 밤새워 합시다.

좋아요, 내가 이것 공부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박찬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위원장 이미경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시고 박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숙 위원 아까 제가 유명무실한 브리핑제를 개편할 용의가 없으신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전임 장관이 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개편할 용의가 없다는 말씀이었나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찬숙 위원 지난 8월에 국정홍보처가 정부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에 대해서 회견이나 기고나 협조를 하지 말라, 이런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각 부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긴 공직자에게 경위서를 받아냈습니다.

그중에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속해 있습니다만 이런 지침들이 문화관광부가 행할 올바른 언론지침이랄까, 행태라고 보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국정홍보처의 지침으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배경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어느 언론은 인터뷰해서는 안 되

고 어느 언론에는 기고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편가르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언론정책이라고 보시는지……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아무튼 그러한 지침이 나온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숙 위원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비판도 귀 기울여서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전 이해찬 총리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안민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안민석 위원 아까 제 말씀의 진의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도 일본 체육회장이 전 수상 출신의 지금 국회의원 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신분이 있습니다. 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사무처장, 상근부회장, 거의 준공무원 신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당 당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 첫 번째 국회 할 때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똑같은 워딩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체육회장 서울시장입니다, 경기도체육회장 경기도지사입니다. 대전시체육회장 대전시장입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장은 대통령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체육단체 구조 개편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30~40년 전에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체육을 컨트롤하던 그 시대에 짜여진 체육의 큰 시스템이 지금 시대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어 있으니 다시 시대에 맞게 그 틀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체육단체 통합과 KOC 통합이든 분리든 큰 그림을 그려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최구식 위원님은 추가질의가 아니고 질의시간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최구식 위원 공천심사 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으로 내정 발표된 것이 3월 언제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구식 위원 장관이 되기 위해서 참으로 인생을 걸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은데 장관 되시는 것이 인생에서 큰일인 모양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날짜라든가 숫자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최구식 위원 오늘이 며칠인지는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가끔 제 핸드폰 번호도……

○최구식 위원 오늘 3월 23일입니다.

발표 난 것이 3월 2일입니다. 오늘로 21일이 흘렀습니다. 문화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최구식 위원 오늘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파악이 된 것이 참으로 많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억울하십니까, 제 판단이?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일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직 미비한 것도 인정합니다.

○최구식 위원 영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 두고 계십니까? 특히 스크린쿼터는 지금 영화계의 현안만이 아니고 일종의 국가적인 현안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답변하실 때 나름대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습니다.

○최구식 위원 나름대로는, 전혀 몰라도 나름대로라는 말을 붙이면 대개 다 익스큐즈가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진행된 문화관광부의 아주 깊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구식 위원 장관은 국무위원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최구식 위원 국무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은 다 내용을 아시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아까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하고 문답을 할 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소신을 좀 바꾸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따라서 소신을 바꾼다기보다는 제가 취임 내정을 받기 전에 정부의 방침이 이미 법으로서 결정이 됐고……

○최구식 위원 법이 아니고 시행령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시행령이 결정됐고 그곳에 내정을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부의 방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적인 한 부서 또는 어느 한 장관의 의견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의견들이 조율되고 오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구식 위원 스크린쿼터 문제는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73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구식 위원 문화인들은, 꼭 문화인이 아니고 문화 관계자들은 문화계의 입장을 정부에다가 말하자면 반영하는 창구로 문화부장관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조직 원리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라고 말씀하시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높은 사람을 정부라고, 예컨대 장관이 있고 그 발표는 부총리가 했습니다. 또 그 결정은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된 것을 문화계에다가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화부장관입니까, 아니면 문화계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말하자면 주로 경제입니다. 경제와 통상 외교 이쪽에서 문화는 작은 것이고 이게 더 큰 거니까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결정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 대한 말하자면 문화부장관 자리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글썄요, 그동안 이 시행령이 결정되기까지 문화관광부는 나름대로 예술인들 영화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렇게 결정되기까지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구식 위원 개헌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은 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정해진 것을—지금 주무 장관이신데—그때 정해졌으니까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장관 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부분은 제가, 장관이 전체적으로 시행령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서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구식 위원 차후에 자주 만나게 될 거니까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문화다양성협약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최구식 위원 언제 통과됐는지도 아십니까?

미안합니다. 작년 10월 20일입니다. 그 나흘 뒤에 고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협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 중 하나가 스크린쿼터제도다.

협약 정신에 비추어 보면 스크린쿼터는 정당하다. 나는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자는 것이지 국내 영화산업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생각을 얘기할 때는 제가 자연인으로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적 인간으로서 공적인 결정과 앞으로 저의 철학을 어떻게 한국영화 발전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구식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님을 아주 훌륭한 분을 잘 모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다. 하지만 청문회를 하면서 다른 모든 배역에는 참으로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관이라는 자리에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이계진 위원 조용히 다시 물겠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출이 늦어지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늦어진 것이 아니라 늦어진 것은 늦어질 수 있다고, 지금 가져오기가 어려우니까 내일 갖다 주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엉뚱한 걸 갖다 주고 저를 혼계하는 메모까지 갖다 댔습니다.

말하자면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하고 메모까지 갖다 댔어요. 다 읽어 보고 공부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더니 막…… 보셨지요?

추가질의 하는데 갖다 집어던지고 갑니다. 그것을 보려면 다시 적어도 1시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한 것은 아닌데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저는 내정자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시작할 때 그랬지요? 손수 운전까지 하고 다녀서 직원들의 칭송이 자자하더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내정자님의 도덕성이나 개인적인 과오든 여기에 집착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훌륭한 예술인이고 극장장이셨는데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과연 어떠실까?

국민들은 다른 쟁점보다 업무능력을 검증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야 청문회 뭐 하러 하느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조용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참모들이 거짓말하는 것 괜찮습니까? 이런 참모들과 함께 일할 때 허점투성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과하시면 제가 받

겠고……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조건부입니까? 그러면 사과 안 받겠습니다.

됐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명곤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김명곤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감 나오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고견을 들려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질의에 대해 제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문화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귀담아 들으면서 새로운 도전의식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오늘 주신 고견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한국을 가꾸어 가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충고를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다양한 많은 도움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기타 인사청문회 관련자들의 협조 속에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명곤 후보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각적인 검증을 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검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충실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의 작성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최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지켜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녹음 내용

○남 방은진 씨 부탁드립니다.

○여 ……

○남 아까 그 이력서 관련해 가지고요, 98년도 1월달부터 방은미 씨가 대표를 한 게 맞지요?

○여 예.

○남 그러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표직이신가요?

○여 예.

○남 그러면 김명곤 씨는 97년도 12월달까지 대표직이셨던 거구요?

○여 예.

○남 그 이후로는 명예회원이신가요?

○여 ……

○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위원(24인)

강 혜 숙	김 재 윤	김 재 홍	김 충 환
노 웅 래	민 병 두	박 찬 숙	박 형 준
손 봉 숙	심 재 철	안 민 석	우 상 호
윤 원 호	이 경 숙	이 계 진	이 광 철
이 미 경	이 재 오	이 재 웅	정 병 국
정 종 복	정 청 래	천 영 세	최 구 식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문 회

전 문 위 원 최 민 수

○출석 공직후보자

김 명 곤

○기타 참석자

민 병 하(국립중앙극장 기획조정부장)